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프랑스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교육 연구

- A2수준을 위한 관용어 목록 수립-

**Étude sur la phraséologie à destination des  
apprenants en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dresser une liste de la phraséologie pour le niveau A2-**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불어전공

홍 하 영

프랑스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교육 연구

- A2수준을 위한 관용어 목록 수립 -

**Étude sur la phraséologie à destination des  
apprenants en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dresser une liste de la phraséologie pour le niveau A2-**

지도 교수 심 봉 섭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불어전공

홍 하 영

홍하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 원 장 \_\_\_\_\_ 장 승 일 (인)

부위원장 \_\_\_\_\_ 김 진 하 (인)

위 원 \_\_\_\_\_ 심 봉 섭 (인)

## 국문초록

# 프랑스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교육 연구

## - A2수준을 위한 관용어 목록 수립 -

학습자들은 관용어를 배우면서 언어적 역량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가 통용되는 사회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관용어는 교육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 교육에서 부차적인 학습요소로 다뤄졌다. 본 연구는 관용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초급단계에서 학습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번째로 관용어의 속성과 범주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관용어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도 ‘굳어짐, 다중어휘성, 관용성, 불투명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용어의 범주는 González-Rey(2015)가 관용어를 분류한 것을 토대로 하여, 관용어를 상위 범주로 두고, 하위 범주에 연어, 관용문장, 관용어구, 속담·격언이 있다고 정리한다. 또한 관용어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하고, 유럽공통참조기준(CECR)을 살펴보면서 학습요소로서 관용어의 가치에 대해 확인한다.

그 다음으로 관용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살펴본다. 먼저 교육과정에서는 관용어를 통해 언어적, 사회문화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의사소통 기본표현과 같은 관용문장은 많이 수록 되어있으나 연어, 비유적 의미의 관용어구, 속담·격언은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관용문장을 제외한 연어, 관용어구, 속담·격언의 활용을 높이고, 관용어 교육을 적어도 A2수준에서부터는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2수준의 학습자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용어 목록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육과정 기본어휘를 포함하고, 빈도수가 높은 관용어를 선정한다. 선정된 관용어 중에서 A2수준에 맞는 관용어를 분류하기 위해 ‘의미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하여 관용어를 분류한다. 이렇게 선정한 관용어를 ‘교수·학습 방안’과 ‘명칭론’이라는 두 기준을 토대로 분류하여 관용어 목록을 최종적으로 제시한다.

관용어 학습은 학습자가 한 언어의 완벽한 습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또한 문화와 관련해서도 관용어는 적합한 학습 요소가 될 수 있다. 관용어를 통해 언어적, 사회문화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초급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는 단계별 학습이 이뤄져야 하며, 더 다양한 관용어 목록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시도한 A2수준을 위한 관용어 목록은 앞으로 관용어 교육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주요어 : 관용어, 관용어 교육, 관용어 목록, 연어, 속담·격언, 관용표현  
학 변 : 2014-22964

# 목 차

1.서론 .....	1
2.관용어의 속성과 관용어 교육의 가치 .....	4
2.1. 관용어의 속성.....	4
2.2. 관용어의 범주.....	10
2.2.1. 연어 (collocation) .....	12
2.2.2. 관용표현 (Expression idiomatique).....	14
2.2.3. 속담 · 격언 (les Parémies).....	15
2.3. 관용어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	18
2.3.1. 관용어 교육의 필요성 .....	18
2.3.2. 학습요소로서의 관용어의 가치 .....	22
3. 관용어 교육의 현황과 관용어 교육의 방향 .....	30
3.1. 교육과정 분석.....	30
3.2. 교과서와 FLE교재의 분석 .....	32
3.2.1. 교과서 분석 .....	33
3.2.2. FLE교재의 분석 .....	36
3.2.3. 교과서와 FLE교재의 분석 결과.....	44
3.3. 관용어 교육의 방향 .....	46
4. A2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목록 제시 .....	50
4.1. 관용어의 선정과 관용성에 따른 관용어의 분류.....	50

4.1.1. 관용어 선정 과정 .....	50
4.1.2. 교육과정 기본 어휘를 포함하는 관용어의 선정.....	51
4.1.3. 관용성(의미의 투명성)에 따른 관용어의 분류.....	52
4.2. A2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목록 제시 .....	65
4.2.1. 교수-학습 방법의 차이에 따른 관용어 목록.....	66
4.2.2. 명칭론에 따른 관용어 목록.....	76
5. 결론.....	86
참고문헌 .....	88
부록 .....	93
Résumé .....	122

## 표 목차

[표 1] 본논문에서 정의하는 관용어의 하위 범주와 그 특징.....	17
[표 2] CECR에서 기술된 ‘언어 능력’과 관련된 관용어.....	26
[표 3] 교육과정의 관용어 관련 내용.....	30
[표 4] 교과서 <i>Le Français I</i> 에 수록된 관용어의 일부 내용.....	33
[표 5] 교과서 <i>le Français II</i> 에 수록된 관용어의 일부 내용.....	35
[표 6] <i>Alter Ego1</i> 에 수록된 관용어의 일부분 예시.....	37
[표 7] <i>Alter Ego2</i> 에 수록된 관용어의 일부분 예시.....	40
[표 8] <i>Alter Ego3</i> 에 수록된 관용어의 일부분 예시.....	42
[표 9] <i>Alter Ego4</i> 에 수록된 관용어의 일부분 예시.....	43
[표 10] 기본 어휘를 포함하는 관용어의 범주 별 분류.....	52
[표 11] 투명성 정도에 따른 관용어 분류.....	54
[표 12] 투명성의 정도에 따른 유형과 관용성의 정도.....	55
[표 13] 김부경(2013)의 관용성의 정도에 따른 관용어 분류.....	57
[표 14] Gonzalez-Rey(2015)의 의미의 투명성으로 분류한 관용어의 예시.... .....	58
[표 15] Pecman(2004)의 의미의 투명성으로 분류한 관용어의 예시.....	58
[표 16] 관용어를 의미의 투명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기준 ....	59
[표 17] 투명한 관용어의 유형별 분류 예시.....	61



[표 18] 반투명한 관용어의 유형별 분류 예시 .....	62
[표 19] 불투명한 관용어의 유형별 분류 예시 .....	64
[표 20] 교수-학습 방법의 기준에 따른 관용어 목록의 예시 .....	66
[표 21] 교수-학습 방법 기준1에 따른 관용어 목록 .....	68
[표 22] 교수-학습 방법 기준2에 따른 관용어 목록 .....	70
[표 23] 교수-학습 방법 기준3에 따른 관용어 목록 .....	73
[표 24] Pecman(2004)의 의미의 기준에 따른 관용어의 분류 예시.....	76
[표 25] A2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개념별 관용어 목록 .....	77
[표 26] 프랑스어 교육과정 기본어휘를 포함하는 관용어 .....	93

## 그림 목차

[그림 1] 의미론, 어휘, 형태통사적 측면에서의 ‘굳어짐’의 정의 .....	5
[그림 2] 관용어를 구성하는 하위 분야 .....	12
[그림 3] A2수준을 위한 관용어 목록 수립 단계 .....	50

# 1. 서론

관용어는 속어, 관용구, 성구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관용어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학자마다 관용어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프랑스 관용어 연구에 큰 기여를 한 Bally(1951:65-66)는 관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만약 단어들의 그룹에서 각각의 기호가 가지고 있던 개별적인 의미의 한 부분을 잃거나 혹은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그 요소들의 조합이 하나의 명확한 의미를 나타낸다면 우리는 그것을 ‘locution composée’와 관련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용어로 ‘*phraséologie*’라고 한다”<sup>1</sup>. 한편, 사전적 의미에서 관용어는 ‘저자, 사회계층, 규범, 시대, 언어에 알맞은 표현방식 또는 문장의 구문’ 또는 ‘원어의 독특한 구 또는 문장의 모음이며 이러한 언어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sup>2</sup>으로 정의되고 있다. 관용어의 정의는 관용어의 범주와도 연관되는데 연구자마다 비유적 의미가 약한 언어(collocation), 비유적 의미가 강한 속담을 관용어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관용어는 언어학과 교육학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부수적인 요소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관용어는

---

<sup>1</sup> Si, dans un groupe de mots, chaque unité graphique perd une partie de sa signification individuelle ou n'en conserve aucune, si la combinaison de ces éléments se présente seule avec un sens bien net, on peut dire qu'il s'agit d'une locution composée. [...] c'est l'ensemble de ces faits que nous comprenons sous le terme général de *phraséologie*. (Bally, 1951 : 65-66)

<sup>2</sup> La Rousse. “*phraséologie*”, <http://www.larousse.fr/dictionnaires/francais>, (2017.6.27)

교과서의 부록 정도로만 취급되기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는 관용어를 통해 모국인과 같은 세련된 언어표현을 구사할 수 있으며, 언어 사회의 문화적 지식까지 얻을 수 있다.

CECR(2005:86)에서도 학습자가 관용어를 통하여 언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프랑스어 교육과정에서도 관용어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관용어 교육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는 관용어에 대한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어떤 관용어를 학습에 활용해야 하는지 자료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관용어 교육은 고급수준의 학습자들에게만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용어 교육은 초급 수준의 학습자부터 단계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2수준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관용어 목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관용어 교육의 현황과 교재 분석을 토대로 초급학습자에게 필요한 관용어 목록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관용어의 속성과 관용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2장에서는 관용어의 속성과 범주 그리고 관용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고찰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관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용어의 속성과 범주에 대해 정의 내리고, 관용어가 갖는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논한다.

3장에서는 한국 FLE교육에서 관용어 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고, 교과서와 비교를 위해 FLE교재도 함께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현황과 교과서의 분석을 토대로 관용어 교수-학습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4장에서는 A2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목록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과정 기본어휘를 포함하는 관용어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수집한 관용어를 의미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삼아 학습단계별로 분류한다. 그 후에 A2수준의 학습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관용어 목록을 분류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제시한다.

## 2. 관용어의 속성과 관용어 교육의 가치

### 2.1. 관용어의 속성

관용어의 개념은 학자마다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관용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관용어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관용어의 속성에 대한 의견은 관용어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학자마다 서로 다르지만, 본 장에서는 관용어의 여러 속성 중에서도 이 4개의 속성은 관용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대표적인 속성인 ‘굳어짐 혹은 고정성, 다중어휘성, 관용성, 불투명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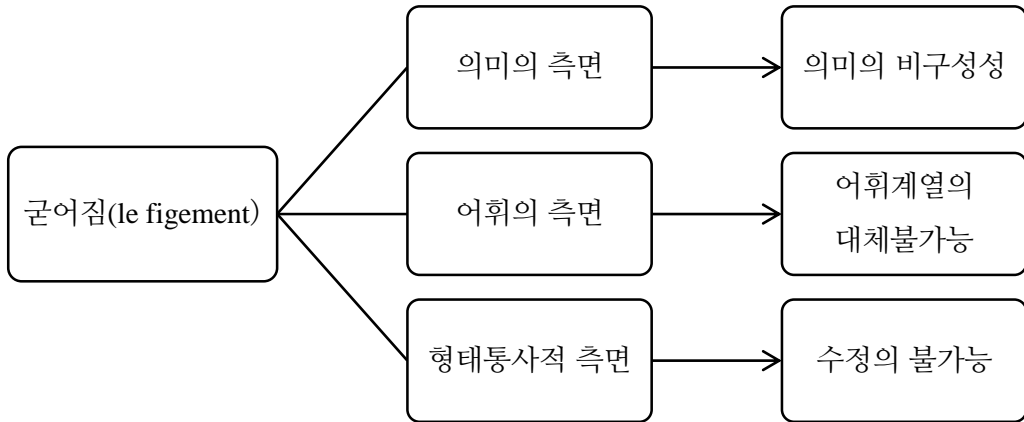
#### 1) 굳어짐 혹은 고정성(Le figement ou fixité)

‘굳어짐(le figement)’은 관용어의 중요한 특성으로, 통사론, 의미론, 어휘, 형태통사론과 관련되어 있다. 통사적 측면에서, 관용어의 구조는 이 ‘굳어짐’이라는 속성때문에 자유로운 구문(consutruction libre)과 대조적이다(Gonzalez-Rey, 2015:47). 예를 들어, « Paul a pris la tangente »라는 문장에서 « prendre la tangente »는 ‘몰래 도망가다, 난국을 교묘하게 피하다’라는 표현의 관용어이며 전체 문장은 « Paul은 몰래 도망갔다 »로 해석 된다. 이 문장을 수동태 형태인 « \*La tangente a été prise par Paul »로 바꾸면 처음의 문장과 완전히 다른 뜻이 되며, 매우 어색한 뜻으로 해석된다(Gross, 1996:73). 이러한 예를 보았을 때, 관용구로 쓰인 « prendre la tangente »은 내적으로 굳어져 한 덩어리로 사용되어야만 원래의 뜻을 잃지 않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관용어가 앞선 예와 같이 ‘굳어짐’의 속성이 강한 것은 아니다. ‘굳어짐’의 속성이 강한 관용어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관용어도 존재한다.

Lamiory(2008:6)는 의미론적, 어휘적, 형태통사론적의 측면에서

‘굳어짐’의 속성을 정의하였는데, 그것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의미론, 어휘, 형태통사적 측면에서의 ‘굳어짐’의 정의



의미의 측면에서, ‘굳어짐’은 의미가 비구성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Nunberg et al(1994 :496)에 따르면 “의미의 ‘구성성(compositionnalité)’이란 관용어를 이루는 구성요소가 관용적 의미의 식별 가능한 부분을 전달한다”<sup>3</sup>는 것이다. 이처럼 ‘구성성’이란 관용어를 이루는 단어들의 의미를 통하여 관용어 전체의 의미의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의미의 ‘비구성성(non-compositionnalité)’이란 관용어를 이루는 요소들의 의미의 합이 관용어의 전체 의미와 일치하지 않고, 구성 요소들을 통하여 전체 의미를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1) Luc a cassé sa pipe

---

<sup>3</sup> Semantic compositionality refers to the fact that the constituents of some idioms “carry identifiable parts of the idiomatic meaning” (Nunberg, sag, & Wasow, 1994:496)

a. Luc avait une pipe et il l'a cassé

b. Luc est mort subitement

(1)의 « *casser sa pipe* »는 ‘갑자기 죽다’라는 의미의 관용어이다. 이 문장을 구성요소들의 의미대로 해석하면 (1a)와 같이 ‘Luc은 자기의 파이프 담뱃대를 부러뜨렸다’라고 해석된다. 이처럼 구성요소의 의미의 합은 관용어 « *casser sa pipe* » 의 전체 의미와 일치하지 않으며, « *casser* »와 « *sa pipe* »라는 두 어휘 요소를 통하여 ‘갑자기 죽다’라는 의미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구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Gross, 1996:15).

어휘의 측면에서, ‘굳어짐’은 관용어를 이루는 어휘들 중 하나를 의미가 유사한 다른 어휘로 치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Gross(1996 :17)가 들었던 예를 통해 확인해보면 ‘먹다(*manger*)’동사가 자유구문으로 사용되었다면 ‘먹다’동사 뒤에는 여러 음식 단어들이 올 수 있지만,<sup>4</sup> ‘먹다(*manger*)’ 동사가 « *manger de l'argent*(돈을 잃다) »와 같이 굳어진 관용어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먹다(*manger*)’동사 뒤에 올 수 있는 어휘는 « *l'argent* » 밖에 없다. ‘돈’이라는 의미의 다른 계열의 어휘로 치환하면 본래 관용어의 의미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1)의 경우에도 « *casser* »라는 동사는 ‘부러뜨리다’라는 의미의 동사« *briser* »로 치환될 수 없다. 치환이 가능한 경우는 그 표현을 관용어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이다.

형태통사적 측면에서, ‘굳어짐’은 관용어의 형태와 구조가 수정될 수

---

<sup>4</sup> Ainsi, après le verbe *manger*, on peut avoir la classe des aliments et non pas seulement le mot *steak*. [...] Nous observons que, dans les suites figées, cette possibilité de substitution synonomique est exclue (Gross, 1996 :17)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a. Paul a pris (une, sa, cette, ta) veste

b. Ce candidat a pris une veste

(2a)에서 « prendre une veste »는 고정된 형태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veste » 앞의 한정사를 자유롭게 하여 ‘Paul이 겐옷을 입었다’, ‘Paul이 그의 겐옷을 입었다’, ‘Paul이 그 겐옷을 입었다’, ‘Paul이 너의 겐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를 생성해낼 수 있다. 반면에 (2b)의 « prendre une veste »는 ‘패배하다’라는 의미의 관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 veste » 앞의 한정사는 고정된 상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Gross, 1996 :14).

Lamiroy(2008 : 6)가 의미, 어휘, 형태통사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굳어짐’은 관용어에서의 ‘굳어짐’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가 인정했듯이 “‘굳어짐’은 언어활동의 주요한 현상을 이루는”<sup>5</sup> 속성이며 관용어에만 국한된 속성은 아니지만 관용어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기 위한 관용어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다.

## 2) 다중어휘성(La polylexicalité)

Gross(1996:9)에 의하면 ‘다중어휘성’은 최소 두 개 이상의 어휘로 구성되어 하나의 의미로 기능을 하는 조합을 지칭하며 형태와 관련한 속성이다. Gonzaley-rey(2015:47)는 “« voir rouge(격노하다) »와 같이 두 어휘가 결합한 경우는 하위 수준의 다중어휘에 속하며, 상위 수준에는

---

<sup>5</sup> Ainsi, on s’accorde à dire que le figement constitue un phénomène central du langage (M. Gross 1988, Hausmann 1997, Klein 2007), au sens qualitatif comme au sens quantitatif.



« aller où le roi ne va qu'à pied(화장실 가다)»와 같은 구성적인 문장과 노래, 기도문, 시가와 같은 텍스트가 상위 수준에 속한다”<sup>6</sup>고 본다. 관용어가 가지고 있는 ‘다중어휘성’이라는 속성은 관용어가 형태적으로는 여러 어휘가 결합되었지만, 결국은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단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발화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 d'accord », « soit ! »등과 같은 표현들은 두 개 이상의 어휘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관용어처럼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이러한 관용어는 ‘다중어휘성’으로만 설명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Gonzalez-Rey, 2015 :47).

### 3) 관용성(l'idiomaticité)<sup>7</sup>

관용어의 가장 큰 특징은 관용어를 구성하는 어휘들이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Gonzalez-Rey(2015:49)는 “관용어를 구성하는 어휘들의 의미의 합이 관용어 전체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관용성’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모든 관용어가 동일한 관용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관용어일지라도 관용성이 큰 경우 즉, 구성 단어만을 보고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관용어가 있고, 어휘를 보고 그 의미 파악이 가능한 관용어, 즉 관용성이 작은 관용어도 있다. 예를 들어, « avoir la tête

---

<sup>6</sup> “Les limites de cette polylexicalité sont généralement fixées, au niveau inférieur, à deux mots (voir rouge), et au niveau supérieur, à la phrase composée (aller où le roi ne va qu'à pied)et même au texte (prières, chansons, refrains, poèmes, etc.).”

<sup>7</sup>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가 없어 이 논문에서는 임의적으로 ‘관용성’이라고 해석하였다.

dans les nuages »란 관용어는 ‘몽상하다’라는 의미의 관용어인데, 구성 어휘의 의미의 합이 전체 의미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관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 faire un somme »는 ‘낮잠을 자다’라는 의미의 관용어이며 구성 어휘의 의미의 합만으로 관용어 전체의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에 관용성이 작다고 볼 수 있다.

#### 4) 불투명성(l'opacité)

관용어의 ‘불투명성’은 ‘관용성’과 마찬가지로 관용어 의미의 측면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 관용어의 ‘불투명성’과 ‘관용성’은 의미와 관련된 속성이기 때문에 두 속성을 완전하게 구분해서 정의 내릴 수 없으며, 불투명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용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했던 관용성이 큰 관용어, 즉 구성어휘의 의미의 합만으로는 관용어의 뜻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는 의미가 불투명한 관용어가 된다. 반대로 구성 어휘만 보고도 관용어의 전체 의미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의미가 투명한 관용어라고 할 수 있다. 관용어의 의미가 불투명한 이유는 관용어가 처음 가지고 있던 의미가 오랜 시간에 걸쳐 차츰 변화한 것일 수도 있으며,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어떤 특별한 사유와 관련하여 형태만으로는 그 뜻을 쉽게 파악하기 불가능 했던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 poser un lapin(바람 맞히다) »같은 표현은 처음 가지고 있던 의미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한 경우에 속한다. 1880년에 « poser un lapin »은 ‘젊은 여자의 호의에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토끼(un lapin)가 ‘지불하지 않음’이라는 비유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 이후에는 ‘밀항자’라는 의미도 있었다. ‘바람 맞히다’라는 현재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890년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쓰이게

되면서부터다. 반면에 처음부터 그 형태만으로 뜻을 쉽게 파악하기 불가능했던 경우의 예로는 «casser sa pipe(죽다)»라는 표현이 속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약 17세기에서부터 사용된 표현이지만 왜 이러한 표현이 ‘죽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sup>8</sup>

이처럼 관용어의 ‘불투명성’이란 속성은 의미와 관련하여,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의미가 투명한 정도에 가까운 관용어도 있으나 그 외에 대부분의 관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여 언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식 또한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런 불투명한 의미의 관용어를 활용하면 언어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관용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용어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관용어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학자들이 정의한 관용어의 속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관용어의 속성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위에서 살펴본 4가지 특성은 교수자가 관용어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하도록 돕고, 교육 현장에서 관용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 2.2. 관용어의 범주

본 절에서는 관용어로 칭해지는 관용어의 범주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관용어 범위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교수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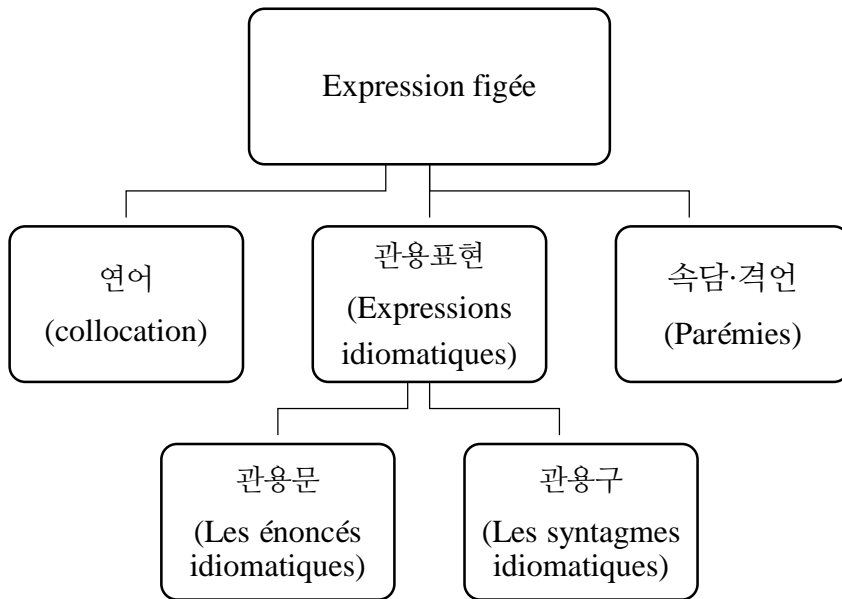
---

<sup>8</sup> ‘<http://www.expressio.fr>’와 ‘<http://dictionnaire.reverso.net>’의 “poser un lapin”의 기원 참조

관용어의 언어적 기능을 이해하고, 관용어 단위의 다양한 속성을 식별하여 정확히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용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관용어의 하위 영역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관용어를 가르칠 때 학습자의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 어떤 관용어를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마다 관용어의 범주에 대한 의견은 매우 다르다 Hausmann은 ‘단어 조합(word-combination)’을 굳어진 것과 굳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굳어져서 사용되는 단어 조합이 ‘관용어(idiom)’라고 분류하고, 굳어지지 않은 단어 조합의 하위영역에는 자유 결합하는 단어 조합(co-creation), 서로 자주 함께 쓰이는 단어 조합인 연어(collocation), 항상 짝지어져 결합되는 단어 조합(coutner-creation)으로 분류하였다(Beatrice, 2004:3). 또 Firth, Sinclair와 같이 특별한 설명이나 하위 범주의 구분없이 ‘연어’와 ‘자유로운 결합의 어휘’의 두 개의 큰 범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며, Gläser 또한 관용어의 범주를 ‘관용어(idiom)’과 ‘속담(proverb)’으로만 분류하고 있다(Meunier et al., 2008: 48,50). 학자들마다 여러 방식으로 관용어 범주를 분류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González-Rey(2015:61)가 관용어의 하위 그룹을 크게 3가지로 나눈 유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González-Rey의 분류를 택한 이유는 그가 관용어를 통사론적 기준이 아니라 화용론적 기준, 의미론적 기준에 따라 관용어의 분류를 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용어를 의미의 측면과 관련한 관용어 목록을 제시할 것이므로 González-Rey가 ‘의미의 투명성’을 따라 분류한 관용어의 범주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 관용어를 구성하는 하위 분야



González-Rey(2015:61)는 위의 도식과 같이 굳어진 표현(Expression figée)<sup>9</sup>을 먼저, 연어(Collocation), 관용표현(Expressions idiomatiques), 속담 및 격언(Parémies)이라는 하위 그룹으로 분류하고, 관용표현을 다시 관용문과 관용구로 분류하고 있다. 각 유형의 관용어들은 같은 속성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는 각 관용어 범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2.2.1. 연어(collocation)

González-Rey에 의하면 ‘연어’는 영어권에서는 J. R. Firth, M. Lewis, M. Benson 등에 의해 연구가 이뤄졌으며, 프랑스어의 경우는 F. J. Hausmann, I.

---

<sup>9</sup> ‘expression figée’도 관용어를 뜻하며, ‘phraséologie’는 좀 더 학술적인 용어에 속함

Mel'cuk와 같은 언어학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연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Firth(1957:181)는 연어를 “단어의 습관적인 위치 또는 습관적인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Lewis(1994)는 연어를 “습관적으로 동시에 함께 사용되는 개별적 어휘들이 합쳐진 것”이라고 보았으며, “논리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Martyńska, 2004:4). Benson(2010: 19)은 연어를 “굳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인식이 가능하며, 관용적인 의미가 아닌 문장 또는 구조”로 정의 내리며, 문법 연어(grammatical collocation)와 어휘 연어(lexical collocation)<sup>10</sup>에 대한 구분을 했다. Hausmann은 어휘의 결합을 고정 어휘와 고정되지 않은 어휘로 구분하였는데, 연어는 고정되지 않은 어휘 결합 중 하나이며, 눈에 띄게 습관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어휘들의 결합이라고 정의한다(Beatrice, 2004:3). 예를 들어, « tenir un journal », « faire une promenade », « gravement malade »등이 연어에 속한다. Mel'čuk(2012:37)는 ‘관용적 표현(phraseological expression)’을 ‘phraseme’<sup>11</sup>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며, 구성적인 ‘phraseme’을 연어라고 정의한다. 즉, 연어는 구성하는 어휘들을 통해 전체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본다. Gonzalez-Rey(2015:61)는 연어는 “연어를 이루는 단어들 각각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으며,

---

<sup>10</sup> ‘문법연어’는 단어들 사이에 문법적 관계를 통해 연어가 된 것이고, ‘어휘연어’은 문법적 관계 보다는 특정 어휘들이 함께 나타나는 특성으로 만들어지는 연어이다 (Benson, 2010 :19)

<sup>11</sup> 복수의 어휘로 구성되었으며, 관용적 표현 또는 구의 형태를 가진 관용어를 의미한다.

지시적인 기능을 한다”<sup>12</sup>고 정의한다. 연어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정의는 구조적 접근을 토대로 한 정의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넓은 의미에서 연어는 함께 자주 쓰이는 단어들의 조합이다. 또한 연어는 자유결합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관용표현에 비해 그 구조가 덜 굳어져 있고, 구성어휘들을 통한 의미파악이 가능하다.

의미의 측면에서, 연어는 다음에 살펴 볼 ‘관용표현’보다는 덜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의미의 구성성을 통해서 연어와 관용표현을 구분지을 수 있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구성성은 의미와 관련이 있는데, 관용어를 이루는 어휘들을 통해 전체적인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성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을 끝내다’라는 의미의 « mettre fin à qqch »와 ‘~을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의 « avoir peur de qqch »는 각 어휘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하여 표현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구성적이라고 볼 수 있다(Gonzalez-Rey, 2015 : 62).

### 2.2.2. 관용표현(Expression idiomatique)

관용표현은 그 구성어휘들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전체적으로 비유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들의 조합이며, 통사적 완결성에 따라 ‘관용문(les énoncés idiomatiques)’과 ‘관용어구(les syntagmes idiomatiques)’으로 나뉜다(Gonzalez-Rey, 2015:61). 관용표현은 연어보다 굳어진 구조이며, 연어와는 다르게 준-동의어에 의한 구성요소의 대체가 어렵다(Cavalla, 2009:5).

---

<sup>12</sup> Qui ne perdent pas le sens propre et premier qu'ils possèdent séparément(sens littéral) et dont la fonction est proprement référentielle: ce sont les « collocations »

‘관용문’은 말그대로 ‘문장’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이다. 예를 들어, 안부를 물을 때 사용하는 « Comment ça va? », 짜증날 때 쓰는 구어 표현인 « J’en ai marre! »와 같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대화표현들이 ‘관용문’에 포함된다. ‘관용어구’는 ‘syntagme’라는 말이 의미하듯 ‘구’의 형태를 띠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 « donner sa langue au chat (포기하다) », « jeter l’argent par les fenêtres(낭비하다) », « mal foutu (기진맥진한) » 등과 같은 비유적 표현들이 관용어구에 포함된다. 의미의 측면에서, 관용표현은 연어와 다르게 구성어휘들을 통하여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비구성적이다.

### 2.2.3. 속담 · 격언 (les Parémies)

« Les Parémies »라는 명칭은 학술 용어이며, 속담과 격언과 같은 표현들을 포함하는 상위 범주의 개념이다. González-Rey(2002: 70)는 « les parémies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비유적 의미를 함께 가진다. 또한 본문에서 인용의 역할을 하며, 논증적 기능도 한다. 이렇게 보편적 진리를 나타내는 요소들을 « les Parémies »라고 한다.”<sup>13</sup> Lennon(1998:19)은 “관용표현은 비유적 의미만을 갖지만, 속담 · 격언은 비유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관용표현과 연어에 포함되지 않는 지혜, 철학, 사상을 포함한다”<sup>14</sup>고 본다. 그러나 속담을 관용어로 볼 것인지에

---

<sup>13</sup> «Les parémies qui ont un double sens, littéral et figuré, sont pourvues d’un statut de citation dans le texte, et possèdent une fonction argumentative : ce sont les « parémies », c’est-à-dire les éléments gnomiques du langage » González-Rey(2002: 70)

<sup>14</sup> “Proverbs differ from idioms in that they are not only firm collocations whose meaning is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이처럼 속담과 격언의 특수성으로 인해 관용어와 따로 분리되어 속담·격언학(la Parémiologie)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되기도 한다(Gonzalez-rey, 2015:65).

교육적 측면에서 속담과 격언은 FLE수업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속담과 격언의 형태와 구조가 규칙적이지 않고, 비유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초·중급 학습자에게 가르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또한 속담과 격언은 아주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그 구성 어휘가 학습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학습자가 고급수준의 언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속담과 격언은 통사적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체를 한 단어처럼 학습해야 하므로 또한 형태·통사론적인 관점에서 분석적인 사고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초·중급 수준에서 학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문화와 사상이 많이 반영되어 문화 교육에 유용하므로 FLE교육에서 잘 활용한다면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2.2절에서 살펴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는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용어의 범주에는 언어, 관용표현(expression idiomatique), 속담·격언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언어와 관용표현은 의미의 구성성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언어는 관용표현에 비해 의미가 비유적이지 않다. 하지만 언어가 절대로 비유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다. 셋째, 속담·격언은 비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교훈적, 풍자적, 해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교육적 가치가 있다.

---

metaphorical, but they also express in aphoristic form some general wisdom or philosophy”

아직까지 관용어를 지칭하는 명확한 명칭과 범주를 나누는 기준은 학자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도 관용어를 지칭하는 명칭에 집중하기 보다는 FLE교육에 필요한 관용어 목록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 방향에 맞는 범주를 선정하여 그 하위 범주의 성격을 알아보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관용어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관용어 목록을 수립하기에 앞서, 용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범주와 특징에 대해 [표1]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후의 연구는 [표1]에서 설정한 범주와 각 관용어의 특성들을 토대로 살펴볼 것이다.

[표 1] 본논문에서 정의하는 관용어의 하위 범주와 그 특징

---

**관용어**

**[언어]**

의미가 투명한 구 형태의 표현

예) avoir froid, avoir mal, faire une promenade...

---

**[관용어구]**

의미가 불투명한 동사구, 전치사구, 형용사구 등 구 형태의 표현

예) être chocolat, raconter des salades, avoir le cœur gros ...

---

**[관용문장]**

상투적으로 사용되어 굳어진 채로 사용되는 일상생활 표현이며 완전한 문장 형태를 띠는 것

예) comment ça va? , J'en ai marre, ça y est...

---

**[속담과 격언]**

의미가 투명하기도 하고 불투명 하기도 하지만 교훈적, 풍자적, 해학적인 성격을 갖는 표현

예) Savoir, c'est pouvoir., L'argent ne fait pas le bonheur, T el arbre tel fruit...

---

## 2.3. 관용어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

본 절에서는 관용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관용어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 2.3.1. 관용어 교육의 필요성

본고에서는 외국어 교육에서 관용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관용어 습득 환경의 부재, 언어사고능력의 신장, 유창성 향상,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도 향상’이라는 네 항목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 1) 관용어 습득 환경의 부재

관용어 교육이 필요한 첫번째 이유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 화자와 달리 관용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언어 환경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국어 화자는 관용어를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적절한 언어 문맥과 상황 하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관용어를 습득할 수 있지만, 외국인 학습자가 관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려면 교육을 통한 학습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국어 화자가 외국인 학습자들에 비해 관용어를 어렵지 않게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인지적 측면과 관련 있다. 관용어의 인지와 관련한 가설은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Cieřlicka(2006)의 가설<sup>15</sup>은 외국인 학습자가 왜 모국어 화자에 비해 관용어를 인지하고, 습득하는데 있어서 느린 지 실험을 통해 대해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학습자는 어휘 요소의 문자 그대로의 뜻에 먼

---

<sup>15</sup> ‘Literal-Saliience Resonant Model of L2 idiom comprehension’

저 집중하고 난 후 그 뒤에 다시 관용어가 갖는 비유적 의미에 접근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모국어 화자에 비해 관용어를 이해하는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들이 합쳐져서 관용어와 같은 형태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배우고 나면, 머릿속에 관용어에 대한 어휘 목록이 머릿속에 생기기 때문에 그 후에 관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게 된다(Cieśllicka, 2006: 120). 만약 외국인 학습자도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관용어를 지속적으로 접해왔다면 위의 실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관용어를 느리게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국어 화자와 같은 환경에 놓이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외국인 학습자들은 더욱 학습을 통하여 관용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며, 알맞은 상황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 2) 언어사고능력의 신장

외국인 학습자는 무엇보다도 관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의미가 투명한 관용어, 즉 관용어를 이루는 요소들을 그대로 해석하면 관용어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미가 불투명한 관용어는 외국인 학습자가 그 표현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관용어들은 논리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 donner sa langue au chat »는 ‘단념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의 관용어인데, 이런 관용어를 모르는 외국인 학습자는 각 구성어휘를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고, 본인이 해석한 것과 전혀 다른 뜻을 갖는 관용어에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교육 시 관용어 학습의 장점을 들여보자면, 학습자는 관용어가 사용된 대화의 문맥과 관용어를 이루는 단어들을 통하여 의미를 연상 및 추론하게 되고,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통해 관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

아내지 못할지라도 성찰과 유추를 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언어사고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게 된다(서은향, 2015 :13). 즉, 학습자는 관용어가 사용된 문맥과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외국어 이해의 기본 조건인 총괄적 이해 습관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어 학습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3) 유창성 향상

관용어 교육은 학습자의 유창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 avoir mal à », « avoir faim », « avoir soif »와 같은 의미가 투명한 관용어는 단어의 의미만 알면 관용어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투명한 관용어이다. 하지만 아무리 투명한 관용어일지라도 각각의 단어를 따로따로 인식하고 있다면, 정작 이 표현이 필요할 때는 빠르게 생각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초보 학습자들은 각각의 단어만을 갖고 문장과 표현을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 내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단어 각각을 따로 학습하여 그 결합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결합된 상태로 한꺼번에 외워두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쉽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보 학습자들의 유창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관용어는 직설적인 표현이라기 보다는 우회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관용어를 적절한 상황에 사용하면 좀 더 세련되고 다양한 언어표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언어 표현은 언어적 유창함으로 이어지며 학습자가 외국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에 더 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들은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을 만들어 낼 수는 있으나 때로는 그 표현들이 모국어 화자들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이주희, 2009 : 15). 관용어 교육은 학습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좀 더 유창한 표현

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대안이다. Lewis(2000)는 언어를 중급 수준 이상으로 배운 학생이 안정기를 뛰어 넘어 고급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서는 원어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을 배워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외국인 학습자가 모국어 화자가 갖고 있는 수준의 유창성을 획득하기 위해 서는 관용어를 학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4)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도 향상

Cavalla(2009:4)에 의하면 관용어에는 언어 사회의 문화적 은유가 내포되어 있다.<sup>16</sup> 이처럼 관용어에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언어권의 문화가 담겨있으므로 관용어 교육은 학습자가 외국어가 사용되는 언어권의 문화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서와 사상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먼 곳에 위치하며 동양의 문화와 다른 점이 많다. 따라서 프랑스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학습자나 가본적이 있는 학습자일지라도 프랑스 문화권에 노출된 기간이 길지 않다면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다. 관용어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언어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지금까지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학습자는 관용어를 학습하면서 동시에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프랑스인들의 생활, 습관, 신앙, 풍속, 역사 등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곽노경(2015:164)은 식품과 관련한 관용어<sup>17</sup>를 언어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식품

---

<sup>16</sup> «...un LNN ne peut prévoir la suite d'une collocation sans la connaître en raison notamment de l'aspect culturellement marqué de la métaphore utilisée. La plupart de ces expressions ne sont alors pas traduisibles d'une langue à l'autre ; là où le français dit *prendre et verre* (*allons prendre un verre*), l'anglais dira *avoir et boisson* (*let's have a drink*) » (Cavalla, 2009 :4)

<sup>17</sup> « En faire un fromage(~을 (터무니 없이) 대단하게 여기다) », « C'est du gâteau(누워

어휘가 포함된 관용어를 통하여 프랑스 사회가 식품과 관련한 관용어를 통하여 어떤 비유적 의미를 전달하는지 알 수 있고, 이러한 관용어가 변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학습자는 문화적 가치 또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예로, 각 나라마다 인기가 있는 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야구는 유럽보다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이므로 야구와 관련한 관용표현<sup>18</sup>이 있지만, 영국에서는 야구와 비슷한 크리켓과 경마에 관련한 관용표현<sup>19</sup>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Boers, 2004:377). Yağiz(2013:955)이 “문화는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그만큼 언어 속에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의 문화가 담겨있다. 특히 위의 예시와 같이 비유적 의미가 강한 관용어를 통해서만 사람들의 일상 생활 문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 2.3.2. 학습요소로서의 관용어의 가치

『유럽공통참조기준(CECR)<sup>20</sup>은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습자와 교사를

---

서 떡먹기) », « avoir la frite(컨디션이 좋다) »...

18 “I had a date with Alice last night, but i couldn't even get to first base with her; Three strikes and you're out”, 여기서 « get to first base with her »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다’로 해석되며 « first base »는 야구에서 ‘1루’의 의미를 가지며, « Three strikes and you're out(삼진아웃) »은 ‘여자에게 차인다’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19 “Bat on a sticky wicket(불리한 입장); Hit someone for six(예기치 못한 소식에 의해 충격받다)”, “A dark horse(경마에서 실력 미지수의 말; 알려진 바가 별로 없지만 예상 밖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놀래키는 사람); Hear it from the horse's mouth(확실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것)”

<sup>20</sup> 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CECR)

위한 교육적 기준과 목표를 제시해주는 지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CECR에서 관용어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관용어가 교육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라고 본다.

CECR(2005:86)에서 관용어는 5.2장에서 ‘언어능력’을 위해 길러야 하는 능력을 세 가지로 나눠 ‘어휘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 ‘화용론적 능력’이 필요함을 기술하고 있으며, 관용어(les expression figée)는 ‘어휘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습해야하는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sup>21</sup> CECR(2001: 87)에 따르면 어휘 요소에는 여러 단어로 이뤄진 ‘상투적 표현(expressions toutes faites)’과 ‘굳어진 성구(locutions figées)’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CECR에서 왜 관용어를 ‘상투적 표현’과 ‘굳어진 성구’로 나누는 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않다. 아마도 ‘상투적 표현’은 사람들로부터 자주 사용되어 전해져 내려온 표현들을 말하는 것이고, ‘굳어진 성구’는 굳어진 상태 그대로 사용되어야 의미가 통하는 표현들을 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기술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투적 표현(les expressions toutes faites)’은 다음의 유형들을 포함한다:**

-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현
- « Bonjour ! Comment ça va ? »

---

<sup>21</sup> ‘화용론적 능력’에서는 관용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 속담

- « Un ‘tien’ vaut mieux que deux ‘Tu l’auras’ ! »

- 고어

- « Aller à vau l’eau (실패로 돌아가다) »

## 2) ‘굳어진 성구(**locutions figées**)’은 다음의 유형들을 포함한다:

- 의미적으로 모호한 굳어진 은유

- « Il a cassé sa pipe (죽다) » = il est mort
- « Ça a fait long feu (오래 걸리지 않다) » = ça n’a pas duré

- 강조유형

- « Blanc comme neige (눈처럼 하얀) » = pur
- « Blanc comme un linceul (수의처럼 하얀) » = livide

• 발화를 도입하는 역할을 하는 조합으로 사용되며, 단어 단어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표현으로 학습되어 사용되는 표현

- « Pouvez-vous me passer... ? ((통화 중) ~를 바꿔 주시겠습니까?) »

- 동사 관용구

- « Faire avec (참다) », « Prendre sur soi (믿다) »

- 전치사 관용구

- « Au fur et à mesure (동시에) »

- 자주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로 구성된 굳은 연어

- « Faire un discours (연설을 하다) », « Faire une faute (실수하다) »

또한 CECR(2005 :94)는 5.2.2.장에서 일반 사람들의 일상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중적인 지혜(Sagesse populaire)’가 들어있는 굳은 표현들을 보여주며, 관용어가 ‘사회언어학적 능력 (Compétence sociolinguistique)’과도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대표적인 예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속담

- « Un tiens vaut mieux que deux Tu l’auras ! (지금 하나가 나중 둘보다 낫다) »

- 관용적 표현

- « Apporter de l’eau au moulin (-에 자금을 대다) »

- 사적인 표현

- « Un homme est un homme (남자는 남자다) »

- 종교적 표현, 날씨에 관한 격언

- « Noël au balcon, Pâques aux tisons (성탄절에 날이 좋으면 부활절에 춥다) »

- 상투적 표현

- « Il faut de tout pour faire un monde (세상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게 마련이다) »

• 가치

- « Qui vole un oeuf, vole un boeuf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CECR의 관용어에 대해 기술한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CECR에서 기술된 ‘언어 능력’과 관련된 관용어

언어능력	관용어의 구분	
어휘능력	상투적 표현 (expressions toutes faites)	-특정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속담 -고어
	굳어진 성구 (locutions figées)	-의미적으로 모호한 굳어진 은유 -강조유형 -발화를 도입하는 역할을 하는 조합으로 사용되며, 단어 단어로 나누지 않고 한 표현구로 학습되어 사용되는 표현 -동사 관용구 -전치사 관용구 -함께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로 구성된 연어

사회언어학적 능력	속담, 관용적 표현, 일상적 표현, 종교적 표현, 날씨에 관한 격언, 태도, 상투적 표현, 가치
-----------	---

이처럼 CECR를 통해 학습요소로서의 관용어는 ‘어휘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여러 학습 요소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관용어는 한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의 문화 지식은 한 사회와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Helena, 2014 :23). 이처럼 관용어는 언어능력의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기를 수 있으므로, 다른 언어학습요소들과 비교했을 때도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CECR에서는 관용어의 습득을 학습 수준에 따라 나누고 있다. CECR는 학습자의 수준을 일반적으로 A, B, C의 세 그룹으로 크게 나눈다. A수준은 초보자의 수준, B수준은 독립적이며 중간단계의 수준에 속하며, C수준은 모국어 화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단계이다.<sup>22</sup> A수준에서는 관용어의 습득이나 사용에 대해 학습하지 않고,

---

22 CECR(2005 :25)는 A, B, C수준을 A1, A2, B1, B2, C1, C2의 6단계로 세분화한다.

1) Niveau A (niveau élémentaire)

- A1: 학습자가 익숙한 분야에서 간단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 A2: 기본적인 기능을 숙달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에서 요령 있게 행동한다. 정보를 묻거나 인사할 수 있다

2) Niveau B (niveau intermédiaire)

- B1: 학습자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원하는 것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과 사람과 사물에 대해 설명하는 아주 기초적인 표현들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의 마지막 수준에서 학습자는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다. B1수준에서는 A수준에서 학습한 문장이나 표현들의 정확한 사용이 요구된다. 특히 B1수준의 청해(compréhension orale)부분에서 “B1수준의 학습자는 대화자가 매우 관용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확하게 발음한다는 조건 하에서 일반적인 주제들에 대해 말해지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CECR, 2005: 63)”라고 설명된다. 즉,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관용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렵고, 반대로 상대방이 관용표현을 사용했을 때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B2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적인 표현, 전문용어, 애매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은 학습자에게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CECR는 본격적인 관용어 학습을 모국어 화자의 수준과 거의 같은 수준인 C수준에서 권장하고 있다. C1수준의 청해 능력은 “구어적 또는 관용 표현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된다(CECR, 2005: 168). 따라서 그 이전 수준의 학습자와는 다르게 관용 표현이 사용되어도 큰 어려움 없이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 C2수준은 학습자가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한 단계이기 때문에, 고어 표현, 관용어 표현들을 어려움 없이 인식하고

---

을 표현할 수 있다.

-B2: 노력 없이 대화할 수 있는 학습자이고, 오류를 자각하고 논증할 수 있다.

### 3) Niveau C(niveau avancé)

-C1: 다양한 문맥 속에서 여유롭게 상호작용하는 독자적인 학습자/사용자

-C2: 언어-문화를 완전히 숙달한 학습자/사용자

사용한다.<sup>23</sup>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CECR는 학습자가 관용어를 인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C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CECR에서 관용어가 학습요소로써 언어능력과 사회문화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기술한 점을 보았을 때, 관용어 교육이 C수준에서부터만 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다소 모순적이다. C1~C2수준에서는 이미 언어능력과 사회문화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용어가 학습요소로써 큰 역할을 못할 수 있다. 오히려 관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A수준의 학습자들이 초급 수준에서부터 언어능력과 사회문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급단계 수준에서부터 관용어에 대한 학습이 시작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통사적 결합이 단순하지 않은 속담과 격언과 같은 관용어는 단기간 내에 학습한다는 것은 어렵다. 관용어 교육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모국어 화자가 관용어를 큰 노력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에 비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특별한 교육없이 관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모국어 화자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러운 습득 또는 학습을 통해 관용어를 습득해서 일상생활에서 관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학습자들은 교육을 통해 관용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23 «l'utilisateur possède une bonne maîtrise d'un vaste répertoire lexical d'expressions idiomatiques et courantes avec la conscience du niveau de connotation sémantique [...] seul un vocabulaire et des expressions très rares ou archaïques peuvent être inconnus mais sans que la compréhension en soit gênée » (CECR, 2001 : 88, 170)

### 3. 관용어 교육의 현황과 관용어 교육의 방향

2장에서는 본격적인 연구 진행에 앞서 관용어의 범주와 속성, 관용어의 교육적인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2장에서 정의한 관용어의 범주와 속성을 토대로 3장에서는 한국 프랑스어 교육에서 관용어가 학습요소로써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과 실제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확인하여 관용어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프랑스어 교육 시 자주 사용되는 FLE교재 한 종류를 선택하여 수준 별로 관용어가 얼마나 제시되고 있으며, 제시 방법은 어떠한가를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 프랑스어 교육에서 관용어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 3.1. 교육과정 분석

2015개정시기 교육과정의 프랑스어 I, 프랑스어 II 교육과정에서 관용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교육과정의 관용어 관련 내용

영역	핵심요소	내용
언어적 내용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낱말의 고유한 의미</li> <li>- 주제와 관련된 낱말군</li> <li>- 맥락에 따른 낱말의 의미 변화</li> <li>- <u>관용적 표현</u></li> </ul>
문화적 내용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언어문화</u></li> </ul>

먼저 [표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의 ‘언어적 내용’에서 어휘 학습과 관련하여 ‘관용적 표현’을 교육해야 할 학습요소

중 하나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관용적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교육과정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전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분석 등을 볼 때,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관용적 표현은 주로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같은 관용문장, 관용어구, 통사적 구조와 의미가 비교적 이해가 쉬운 언어를 관용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용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문화적 내용’으로는 ‘언어문화’를 학습요소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언어문화’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낱말이나 표현에 함축된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 소통 시 활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관용적 표현을 지칭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관용어를 학습요소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언어문화’를 인사법, 호칭, 속담, 격언, 관용적 표현 등을 배움으로써 습득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의사소통 기본표현은 2장에서 언급한 관용어의 범주에서 관용표현에 속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는 관용어 중에서도 특히 의사소통 기본표현과 관련된 관용문장과 관용어구를 학습요소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CECR와 같이 문화의 습득을 위해 속담, 격언, ‘관용적 표현’을 학습요소로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관용적 표현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관용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관용어가 언어와 문화지식의 습득을 위해 학습요소로써 권장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관용어가 수업에서 다뤄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sup>24</sup>

## 3.2. 교과서와 FLE교재의 분석

이번 장에서는 관용어 목록을 제시하기에 앞서 현재 프랑스어 수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프랑스어 교과서와 프랑스어 교육기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FLE교재를 선정하여 관용어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프랑스어 교과서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행한 *Le Français I, II*을 분석하였으며, FLE교재로는 HACHETTE에서 발행한 *Alter Ego*교재 1권에서 4권까지를 살펴보았다.

### 3.2.1. 교과서 분석

#### 1) *Le Français I*

교과서에 수록된 관용어를 조사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과서 *Le Français I, II*를 살펴보았다. 먼저 *Le Français I*는 총 12개의 과로 이뤄져 있으며, A1, A2수준의 학생들이 학습하기 적합하다.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낮은 비중이지만 연어는 관용어보다 많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관용문장인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높은 비중으로 찾아 볼 수 있었다. *Le Français I*에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 많은 것은 교과서가 ‘acte de parole(언화 행위)’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속담과 격언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래의 표는 *Le Français I*에 수록된 관용어구, 연어를 정리한 것

---

24 프랑스어Ⅱ의 교육과정에서는 관용어와 관련하여 프랑스어Ⅰ에서 확인한 내용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다.<sup>25</sup>

[표 4] 교과서 *Le Français I*에 수록된 관용어의 일부 내용

과	관용어 유형	내용	페이지
2과	연어	être(venir) de	34
3과	연어	Avoir+(숫자)an(s)	51
4과	연어	À côté de	66,67
		En face (de)	
		Près de	69
		À droite de À gauche de	70
		Au bout de	72
5과	연어	Changer de	88
6과	관용어구	Faire une grasse matinée	107
7과	연어	En ce moment En plein	114
		Être à	118
		Au bord de	120
8과	연어	Faire la cuisine	130
9과	연어	Faire savoir qc à qn	152
		Parler de	154
10과	연어	À partir de	168
11과	연어	Avoir l'air bon	181

## 2) *Le Français II*

*Le Français II*는 *Le Français I*를 학습한 후 좀 더 심화된 수준의 내용을

---

<sup>25</sup> 이 표는 연어, 관용어구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관용문장, 즉 일상표현과 관련한 것은 교재에 전반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Le Français II*에서도 *Le Français I*에도 구성되어 있던 부분인 <FAÇONS DE DIRE> 또는 본문, 문제 속에서 의사소통 기본표현과 같은 관용문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6단원에서는 축하, 기원, 격려의 말을 하고 이에 답하는 표현을 배운다. 예를 들어, « Toutes mes félicitations ! », « c'est parfait ! », « Bon anniversaire ! », « Joyeux Noël et bonne année ! », « Bon courage ! »와 같은 표현들은 전형적인 관용문장, 관용어구이다.

또한 관용문장만큼은 아니지만 연어와 관용어구를 교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 faire partie de », « avoir tort »등과 같이 비유적 의미가 거의 없는 연어, « boire un verre », « être en train de », « avoir lieu »와 같이 비유적 의미가 있는 관용어구가 수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boire un verre »와 같은 경우는 ‘유리잔’을 뜻하는 « un verre »가 ‘술’이라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따르지 않으면 학습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에 ‘잘못을 하다’라는 뜻의 « avoir tort »는 ‘실수, 잘못’이라는 단어인 « un tort »를 통해 학습자가 충분히 전체 뜻을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연어에 속하는 동사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4]는 *Le Français II*에 수록된 관용어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sup>26</sup>

---

<sup>26</sup> 이 표는 연어, 관용어구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관용문장, 즉 일상표현과 관련한 것은 교재에 전반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5] 교과서 *le Français II*에 수록된 관용어의 일부 내용

과	관용어 유형	내용	페이지
1과	관용어구	Avoir l'air	8
	연어	Quelque part	10
		N'importe où	
	연어	Aller danser	12
		Faire de la natation	
		Faire les courses	
		Server à	14
2과	연어	Faire partie de	30
		D'habitude	32
		Tout le temps	
3과	연어	Avoir envie de	41
		Se brosser les dents	43
4과	연어	Dépendre de	59
		À cause de	61
		Rêver de	
	관용어구	Être en train de	62
	연어	Pour ce faire	
	관용어구	Avoir lieu	
		Au mieux	
	연어	Rendre visite à	63
6과	연어	À present de	94
		D'entre	97
7과	연어	Régler la note	107
	관용어구	Prêtrer attention	110
8과	연어	En effet	120
	관용어구	Se passer de	126
9과	연어	Avoir tort	136
		Avoir peur	140
		En bas de	142
	관용어구	En avoir assez	145
10과	관용어구	Un peu de calme ! Du calme !	153

	연어	Tout de suite	156
11과	연어	Savoir+inf	168
	관용어구	De préférence	169
	연어	En cas de	171
12과	관용문장	C'est toujours comme ça !	185
	연어	faire la queue	
	관용어구	faire son possible	186
	연어	aller droit au but	191

### 3.2.2. FLE교재의 분석

학교 교과서 외에 알리앙스 프랑세즈와 같은 대표적인 프랑스어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학습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FLE교재에는 관용어가 어느 정도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교과서와 비교하기 위해 *Alter Ego1~4*를 선정하여 분석했다.<sup>27</sup>

#### 1) *Alter Ego 1*

먼저 *Alter Ego1*은 A1수준이 공부하기 적합한 교재이다. 이 교재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비유적 의미가 거의 없어 이해가 쉬운 연어, 의사소통 기본표현으로 사용되는 관용문장과 관용어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용어는 <AIDE-MÉMOIRE>라는 구성으로 책의 한 부분에 수록되어 있었다.

---

<sup>27</sup> *Alter Ego*교재는 프랑스어 교재를 많이 출판하는 HACHETTE에서 출판된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원서 교재이므로 본 교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Leçon1. Saluer>에서는 « Bonjour! vous allez bien ? »과 같은 인사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Dossier2>에서는 감사인사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 그리고 감사인사를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 Je vous en prie », « de rien »과 관용문장, 관용어구가 수록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표현 자체를 한꺼번에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속담과 격언은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표 6] *Alter Ego1*에 수록된 관용어의 일부분 예시

장	관용어 유형	교재 내용
dossier1.	관용문장	Bonjour, vous allez bien ? ça va.
	관용문장	Je voudrais des informations Combien ça coûte ? ça coûte combien ?
dossier2.	관용문장	Je vous remercie. Je vous en prie.
	관용어구	De rien.
	관용문장	il fait beau/mauvais. il fait chaud/froid.
dossier3.	연어	J'ai horreur de
	연어	faire le baisemain se donner l'accolade se tenir par la main
dossier4.	관용어구	Joyeux Noël ! Bonne année ! meilleurs vœux! Joyeuses Pâques! Bonne fête!
Dossier5.	관용문장	Tous mes/nous vœux de bonheur ! Je suis/Nous sommes très heureux pour toi/vous. Je te/vous souhaite beaucoup de bonheur ! Quelle bonne nouvelle !

		<p>Toutes mes/nos condoléances !</p> <p>Je suis désolé(e).</p> <p>Nous sommes très tristes.</p>
	관용문장	<p>comment vas-tu/allez vous ?</p> <p>comment elle va ?</p> <p>comment te sens-tu/vous sentez-vous ?</p> <p>comment elle se sent ?</p> <p>Elle va bien(mieux). ≠ Elle va mal.</p> <p>Elle a mal. J'ai mal au ventre/à la tête/à l'épaule/aux jambes.</p>
	관용문장	<p>Ne quittez pas, je vous la passe</p> <p>C'est de la part de qui ?</p> <p>C'est moi</p>
dossier6	관용문장	<p>il pleut.</p> <p>il neige.</p> <p>il fait beau. / il y a des nuages.</p> <p>il fait mauvais/ il y a des nuages.</p> <p>il fait 0°C : il fait froid</p> <p>il fait 13°C : il fait doux</p> <p>il fait 28°C : il fait chaud</p> <p>il y a du vent.</p> <p>Le ciel est bleu/ dégagé.</p> <p>Le ciel est gris/couvert.</p>
dossier7	관용문장	<p>C'est sublime/ridicule/magnifique/super !</p> <p>Exprimer une appréciation sur une personne</p> <p>Il/Elle a l'air d'un clown/d'une star.</p> <p>Il/Elle a l'air ridicule/sympathique/intéressant.</p> <p>Il/Elle est original(e)/beau/belle/élégant(e).</p> <p>Je trouve la fille bien/belle.</p>
		<p>Quelle est votre taille ?</p> <p>Quelle taille faites-vous ?</p> <p>Je fais du 40.</p> <p>Quelle est votre pointure ?</p> <p>Vous chaussez du combien ?</p> <p>Je chausse du 36.</p>
dossier8	관용문장	<p>Demander au client ce qu'il veut</p> <p>-Vous désirez ?</p> <p>-on s'occupe de vous?</p>

		Dire le prix d'un produit -Il coûte 7euros. Indiquer le total à payer -ça fait 36,78€. Demander le mode de paiement -Vous payez comment ? Demander un produit -Je voudrais le dernier CD de Camille. -Je cherche le Ca Vinci Code. -il coûte combien? -Quel est le prix du roman? -combien coûte le disque ? -ça fait combien ?
dossier9	연어	-Le bureau <u>sert de</u> chambre d'amis. -Le jardin <u>sert aux</u> jeux des enfants. -Le jardin <u>sert à</u> faire la sieste.
		Poser de la moquette/du parquet/du carrelage/du papier peint Agrandir la maison/une pièce Refaire une pièce/l'électricité Tapisser/peindre les murs
		donne sur la rue/la cour
Horizons	연어	Interdiction de <u>faire du bruit</u> après 22heures.

## 2) Alter Ego 2

*Alter Ego2*는 A2수준의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재다. 이 교재 역시 *Alter Ego1*과 같이 <AIDE-MÉMOIRE>라는 부분에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 관용문장을 수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lter Ego2*에서는 프랑스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문장도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 il a du culot ! (그는 배짱이 좋다!) »과 같은 표현은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 표현은 아니지만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점은 *Alter Ego1*에서는 의사소통 기본표현으로 사용되는 관용어구는 있지만, 비유적 의미의 관용어구를 찾아볼 수 없었던데 비해, *Alter Ego2*교재에는 6장의 마지막 부분인 <Carnet de voyage>에서 «perdre la tête»와 같은 비유적인 의미의 관용어구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삽화와 함께 표현들이 정리되어 있으며, 관용어구를 학습자들이 스스로 사전을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 7] *Alter Ego2*에 수록된 관용어의 일부분 예시

장	관용어 유형	교재 내용
Dossier2	관용문장	Je n'aime pas qu'on me contrarie. Je suis patient, tolérant. il me surveille en permanence Il est tout le temps sur mon dos. J'aime pas qu'on me marche sur les pieds. J'suis cool
		j'ai besoin de m'occuper, de faire quelque chose d'utile. je voulais absolument faire du bénévolat. Pour moi, c'est vital de travailler C'est très enrichissant pour moi! C'est pénible de travailler la nuit ! Le travail, c'est plutôt ennuyeux !
dossier5	관용문장, 연어	-Cette organisation <b>lutte contre</b> la faim/ <b>cherche à prévenir</b> les atteintes... -Cette organisation a pour objectif de faciliter la réadaptation/a pour objectif la defense du droiti... -Cette association <b>a pour vocation de venir en aide</b> aux personnes/ <b>a pour vocation l'aide</b> aux personnes en difficulté...
		Vous êtes passionné par la musique Vous vous passionnez pour d'autres cultures. Vous êtes intéressé par l'action humanitaire. Vous vous intéressez aux projets éducatifs.

dossier6	관용어구	perdre la tête casser les pieds prendre un coup avoir le bras long faire le pont Il pleut des cordes (it's raining cats and dogs)
dossier8	관용문장	Mais il est fous il ne se rend pas compte ! il a du culot !* ça va pas non!* Vous exagérez! C'est scandaleux! C'est dingue ça !* Si c'est pas malheureux ! Tu te rends compte ! (*Registre familial)
		Bien sûr, je suis pour ! Oui, je suis favorable à le Parade. Le Techno Parade, moi je suis radicalement contre ! Et d'ailleurs je ne suis pas la seule à m'y opposer ! Vous ne vous rendez pas compte ! Vous exagérez ! Heureusement que ça existe, la liberté d'expression!

### 3) *Alter Ego 3*

*Alter Ego3*는 B1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교재이다. 이 교재는 구성의 측면에 있어서 이전의 *Alter Ego1,2*와 다르며, 학습자들이 문화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자료들을 통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이 교재에서도 연어와 관용문장, 관용어구는 확인할 수 있지만,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각 장의 시작부분에 속담이나 인용문이 나온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첫 장인 < J'achète >에서는 속담인 « L'argent

ne fait pas le bonheur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와 « Il n’y a pas de petites économies (티끌 모아 태산)»라는 표현을 넣어 학습자들이 이번장에서 학습할 내용이 ‘돈’에 관련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속담과 격언은 한 문장이지만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속담과 비교해볼 수 있고, 프랑스 사람들은 돈에 대해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속담 및 격언은 짧은 문장이지만 프랑스인들의 사상과 지혜, 철학에 대한 면모를 조금이나마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표 8] Alter Ego3에 수록된 관용어의 일부분 예시

장	관용어 유형	교재 내용
Dossier1	속담 및 격언	<Je séduis> L’habit ne fait pas le moine Le beau, c’est la splendeur du vrai-Platon
Dossier2	속담 및 격언	<J’achète> L’argent ne fait pas le bonheur Il n’y a pas de petites économies
Dossier3	속담 및 격언	<J’apprends> C’est en forgeant qu’on devient forgeron Dans connaître, il y a naître- Vicotr Hugo
Dossier4	속담 및 격언	<Je m’informe> Trop d’info tue l’info La liberté d’informer est la première des libertés
Dossier5	속담 및 격언	<J’agis> Il n’y a que ceux qui sont dans les batailles qui les gagnent- Saint-Just Il faut toujours réfléchir avant d’agir
Dossier6	속담 및 격언	<Je me cultive> La culture ne s’hérite pas, elle se conquiert – André Malraux L’art n’est pas un luxe mas un besoin vital- Robert Bresson
Dossier7	속담 및 격언	<Je sauvegarde> L’homme pille la nature, mais la nature finit

		toujours par se venger. – Gao Xingjian La nature fait bien les choses.
Dossier8	속담 및 격언	<Je juge> L’amour de la justice n’est pour la plupart des hommes que la crainte de souffrir l’injustice – La Rochefoucauld La justice est le droit du plus faible
Dossier9	속담 및 격언	<Je voyage> La veritable voyage n’est pas d’aller vers d’autres paysages, mais d’avoir d’autres yeux – Marcel Proust Les voyages forment la jeunesse

#### 4) *Alter Ego 4*

B2 수준을 위한 *Alter Ego4*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학습 문제에서 관용어구가 수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 avoir la banane(자꾸 웃다), faire un carton(점수를 내다, 이기다), être à la bourre(지각하다)... »등의 관용어구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대화 상황에 들어갈 적절한 관용어구를 고르는 학습 문제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관용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Alter Ego4*에도 연어와 관용문장은 수록되어 있었지만, 학습 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재에는 비교적 쉬운 연어나 의사소통 기본표현은 줄어들고 비유적 의미가 강한 관용어구가 많이 수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Alter Ego4*에 수록된 관용어의 일부분 예시

관용어 유형	교재 내용
--------	-------

관용어구	lâcher l'affaire(=laisser tomber/abandonner) avoir la banane(=sourire) être à la bourre(=être en retard) faire un carton(=remporter un succès) rester scotché(=demeurer sans voix) péter les plombs/ un câble (= <del>perdre</del> la raison, devenir fou)
	avoir la main verte en prendre de la graine couper la poire en deux être un bec fin être mi-figue, mi-raisin y laisser des plumes avoir le cuir solide sucrer les friases payer des queues des cerises

### 3.2.3. 교과서와 FLE교재의 분석 결과

*Le Français I, II*에는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표현인 관용문장과 관용어구<sup>28</sup>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Le Français I*에는 통사적으로 쉬운 구조를 갖고 있는 동사구로 된 연어와 비유적 의미를 포함하는 관용어구<sup>29</sup>는 낮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e Français II*에서는 *Le Français I*보다는 비유적 의미의 관용어구의 비중이 높아지긴 했으나, 이를 통해서 관용어가 학습요소로써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학습 단계가 이전보다 높아지면서 동시에 연어, 비유적 의미의 관용어구의 비중이 좀 더

<sup>28</sup> “Bon courage !”, “Bonne année!”와 같이 의사소통 시에 사용되는 관용어구

<sup>29</sup> “Faire une grasse matinée”, « avoir lieu »같은 관용어구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프랑스어 교육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언화행위(acte de parole)’가 강조된다. 따라서 관용문장이 다른 관용어보다 비중 있게 수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 두 권에서는 공통적으로 속담·격언은 확인할 수 없었다.

FLE교재인 *Alter Ego1*에서부터 *Alter Ego4*까지 교재를 분석해본 결과, *Alter Ego1*, 2에서는 인사, 감사 표현 등의 의사소통 기본표현인 관용문장과 어휘 구성요소들을 통하여 의미 파악이 쉬운 연어 동사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두 교재 모두 속담과 격언은 수록하고 있지 않았다. *Alter Ego 2*에서부터는 관용어구가 특정 페이지에 일부분 수록되어 있었다. *Alter Ego 3*에서는 속담과 인용문, 대화 중 모국어 화자들에게는 자주 사용되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관용문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Alter Ego 4*에서는 관용어구가 학습자가 풀어야 하는 학습문제로써 수록되어 있다. FLE교재를 1권부터 4권까지 살펴본 결과 학습의 단계가 높아지면서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표현과 같은 관용문장은 줄었지만, 프랑스인들이 자주 사용하며 다소 비유적 의미가 강한 관용문장은 더 추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A2수준에서부터 의미가 비유적인 관용어구를 학습 요소로 다루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비유적 의미가 가장 강한 속담과 격언은 B1수준의 학습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와 FLE교재를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A1과 A2정도의 초급 단계에서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같은 관용문장, 관용어구와 통사적으로 구조가 어렵지 않은 연어가 높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었다. 한편 교과서 두 권에서는 속담과 격언을 아예 다루고 있지 않았지만, FLE교재에는 B1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교재에서부터는 속담과 격언이 수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LE교재는 A2수준에서 비유적 의미의 관용어구를 학습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학습 수준이 높아지는 *Français II*부터는 연어와 관용어구가 더 많이 수록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관용표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프랑스어 교과서는 의사소통 역량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므로 의사소통 표현으로 사용되는 관용문장과 관용어구는 높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으나, 연어, 비유적 의미가 강한 관용어구와 관용문장은 수준이 높아지면서 조금 더 수록되어 있을 뿐, 그리 큰 비중으로 다루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속담·격언은 아예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 3.3. 관용어 교육의 방향

#### 1) 초급수준에서부터 시작하는 단계별 관용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에서 관용어는 아직까지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잠깐 배우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취급되고 있다. 앞서 CECR에서는 관용어 교육시기에 대해 고급수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도 관용어를 학습요소로 활용할 것을 기술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시기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관용어 교육은 더이상 고급 수준의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단편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되고, 초급 수준에서부터 계획 하에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관용어 학습 시기에 대해 Cavalla(2008:8)는 관용어에 대한 빠른 인식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서 적어도 A2수준에서부터는 관용어 학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0</sup> 박동열(2014:114)도 관용어 교육 시기에 대하여, “일상 회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투적 표현의 교육이 초급 수준의 단계에서 시작하는 만큼 고정표현과 같은 연어, 관용표현, 속담에 대한 교육도 난이도를 조절하여 초급 수준의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학습해야 할 내용과 관련하여 제시된 텍스트에 우연히 등장하는 관용어를 학습하는 우연적인 관용어 학습을 지양하고, 교육을 초급 단계의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관용어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관용어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 2) 연어와 비유적 의미의 관용어 비중의 향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과서에서는 관용문장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학습요소로써 높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었지만, 연어나 비유적 의미를 가지는 관용어구, 속담과 격언의 비중은 낮음을 확인하였다. 비유적 의미가 있는 표현은 초급학습자에게 의미상 어려울 수 있지만 원어민들 사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 외국인 학습자가 문화에 대한 이해, 유창성의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어의 경우

---

30 이 실험은 2005년 프랑스어를 배우는 B1수준의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학습자에게 텍스트의 도움이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은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연어와 은유적 표현이 강한 관용어를 찾아내는지 실험했다. 이 실험을 통해, 문법적 지식이 관용어를 인식하는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용어 구조에 대한 학습자들의 빠른 인식을 위해서는 적어도 A2수준의 학습 단계에서부터 관용어 교육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에 이른다.



는 비유적 의미가 거의 없어 의미 이해에 문제가 없으므로 초급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초급 수준에서는 관용어구, 속담이나 격언보다는 그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아무리 의미가 쉽고 구성이 간단한 연어라도 학습자가 그것이 연어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올바르게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초급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연어를 인식하고 연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관용어 교육에서는 언어의 유창성을 높이고, 문화에 대한 이해의 향상을 위해서 기본 의사소통 표현의 학습뿐만 아니라 연어, 비유적 의미의 관용어를 학습요소로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 3) 하나의 의미단위로서의 관용어 교육

관용어를 하나의 단위처럼 학습시켜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Niveau-seuil*의 ‘언화행위(acte de parole)’의 개념과 유사하며, 의사소통접근법(*l'approche communicative*)에서 관용어를 ‘비유적인 의미가 내포된 표현’이라기 보다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자주 쓰면서 굳어지게 된 상투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CECR, 2005: 93).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상투적으로 굳어진 의사소통 기본표현은 교과서에서 많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표현들은 단어 하나하나 구분 지어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 자체가 하나의 단위로 학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관용어를 하나의 단위처럼 학습하는 것은 특히 초급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어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권장할 만한 교수·학습 방법이다. 하지만 상투적으로 굳어진 관용문장뿐만 아니라 연어, 비유적 의미가 있는 관용구나 속담·격언도 통사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단위라는 것과 구성어휘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의미 단

위로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요소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의 표현처럼 가르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Cavalla, 2009:4). Etienne(2014:54) 또한 대부분의 관용어가 구성어휘의 의미의 합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관용어를 구성하는 어휘를 분해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어 자체를 하나의 개체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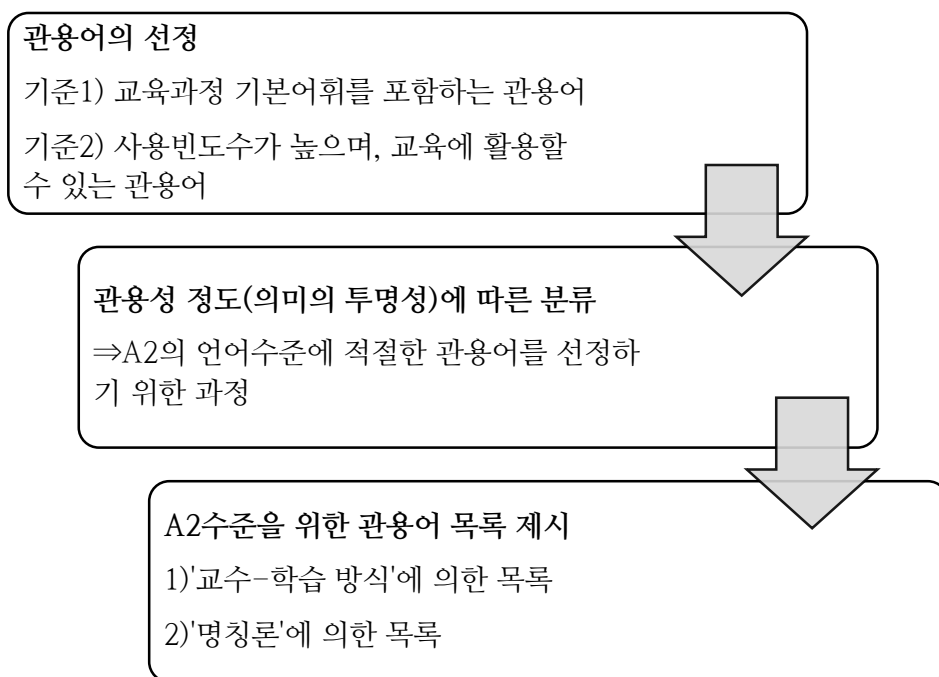
## 4. A2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목록 제시

### 4.1. 관용어의 선정과 관용성에 따른 관용어의 분류

#### 4.1.1. 관용어 선정 과정

본 장에서는 프랑스어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관용어를 수집해서 관용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구분한 관용어를 토대로 A2수준을 위한 관용어 목록을 ‘명칭론’과 ‘교수-학습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관용어 목록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은 [그림3]에 제시된 순서로 이루어졌다.

[그림 3] A2수준을 위한 관용어 목록 수립 단계



학습 수준별 관용어 목록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프랑스어 I, II에 수록되어 있는 기본어휘표를 참고하여 어휘표에 수록된 기본 어휘들이 포함된 관용어를 선정할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관용어들을 다

시 관용성 정도(의미의 투명성의 정도)에 의해 분류한다. 관용어를 관용성 정도라는 기준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학습 수준에 따른 관용어의 난이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학습 수준별로 나눈 관용어 목록을 토대로 하여 A2수준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관용어 목록을 분류 기준에 따라 제시할 것이다.

#### 4.1.2. 교육과정 기본 어휘를 포함하는 관용어의 선정

관용어를 관용성 정도의 기준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관용어를 선정하였다. 관용어를 선정하기 위해 프랑스어 사전, 관용어 사전, 관용어 관련 도서, FLE교재 등을 참고하였다. 관용어의 선별은 우선 기본 어휘를 포함하는 것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를 포함하는 관용어와 속담, 격언 560여개를 선정하였다. 관용어를 선정하기 위해서 설정한 큰 기준은 첫째, 교육과정 기본 어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빈도수가 높으며,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관용어<sup>31</sup>의 선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본 어휘를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 빈도가 높은 관용어는 포함하고자 하였다.<sup>32</sup> 아래의 [표10]은 선정된 560여개의 관용어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며, 부록의 [표26]에서 모든 관

---

<sup>31</sup> 프랑스인들로부터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더라도 비속어와 같이 의미가 교육상 적절하지 않는 관용어는 기본 어휘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제외시켰다

<sup>32</sup> 빈도가 높은 관용어는 기본어휘를 포함하는 관용어 목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A2수준을 위한 관용어 목록에 바로 포함하였다. Caillies (2009)가 관용어를 빈도수로 조사한 논문을 참조하였다

용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0] 기본 어휘를 포함하는 관용어의 범주 별 분류

관용어 범주	관용어
연어	Avoir chaud, faire un somme, avoir tort, prendre le temps de, sans le vouloir...
관용어구	Couper la poire en deux, Gagner son pain, avoir la grosse tête, faire son beurre, faire la tête
관용문장	Ça ne mange pas de pain, Il y a progrès, C'est l'enfance de l'art, Il était moins cinq...
속담 · 격언	Le silence est d'or, Santé passe richesse, Quand on n'a pas de tête, il faut avoir des jambes, On a souvent besoin d'un plus petit que soi...

#### 4.1.3. 관용성(의미의 투명성)에 따른 관용어의 분류

‘관용성(idiomaticité)’은 앞서 설명했듯이 관용어를 구성하는 어휘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의미론의 측면에서, 관용성이 높다는 것은 의미의 투명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관용성이 낮다는 것은 의미의 투명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관용어는 A와 B의 의미가 합해져서 C라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며, 이런 관용어는 구성 어휘의 의미의 합을 통하여 관용어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의미의 투명성이 낮은 것이다.<sup>33</sup> 반면에 관용어를 구성하는 단어들을 통하여 전체의

<sup>33</sup> ‘연어’는 구성어휘의 의미만으로 전체 의미 파악이 가능하므로 투명성이 높다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미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런 관용어는 관용성이 낮다. ‘연어’는 관용성이 낮은 관용어의 하위 범주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 관용성에 따라 관용어를 분류한 이유는 관용성이 낮은 관용어는 의미상으로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우므로 A2 수준의 초급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를 추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관용어를 의미의 투명성의 정도로 나눈 연구들을 확인해보면, 먼저 임지룡(1992)은 Cruse(1986)<sup>34</sup>가 관용어를 투명도의 정도에 따라 의미적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관용어를 투명성 정도에 따라 분류했다. 하지만 임지룡(1992:202)은 “이러한 정도성의 기준이 다양한 관용어에 엄격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관용어의 의미가 ‘불투명하다-반불투명하다-반투명하다’로 나뉘지는 것은 언중들이 관용어를 어느 쪽으로 수용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주장한다. 다음의 [표11]은 임지룡(1992)이 대학생들을 통하여 관용어를 투명성 정도에 따라 분류<sup>35</sup>한 것을 표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

<sup>34</sup> Cruse는 관용어를 투명도의 정도에 따라 의미적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투명하다(transparent)’는 것은 글자 그대로의 직설적 의미를 가진 것이며, ‘불투명하다(opaque)’는 것은 구성요소의 개별적 의미와 관용어의 의미 사이에 유연성(motivation)이 가장 먼 것이며, 그 중간이 ‘반투명한(semi-transparent)’ 또는 ‘반불투명한(semi-opaque)’상태라고 본다(D.A.Cruse, 1986:37-39)

<sup>35</sup> 임지룡(1992)은 1990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하여 관용어의 투명성을 확인하려 했다.

[표 11] 투명성 정도에 따른 관용어 분류<sup>36</sup>

투명성의 정도	관용어의 특성	관용어 예시
불투명형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이다.	시치미 떼다, 자린 고비, 용 빼는 재주, 야닌 밤중에 홍두깨, 호박씨 까다, 학을 떼다, 깨가 쏟아지다, 등진 가재, 오지랖이 넓다, 쇠기를 박다
반불투명형	어느 정도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로서, 세대나 문화권에 따라 반불투명형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된다.	바가지 굶다, 미역국을 먹다, 산통을 깨다, 국수 먹다, 개밥에 도토리, 파리 날리다, 바람 맞다, 비행기 태우다, 싹이 노랗다, 입이 싸다
반투명형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한결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반표현과 관용표현이 공존하면 비유의 연상이 쉽사리 떠오르게 된다.	무릎을 꿇다, 손을 들다, 손을 씻다, 구름을 잡다, 배가 아프다, 구멍이 뚫리다, 발이 넓다, 틈이 생기다, 수박 겉핥기, 하늘이 노랗다

문금현(1998)도 한국어 관용어를 연구했으며, 의미의 투명성을 ‘불투명형한

<sup>36</sup> 임지룡, 1992:202 참조

유형, 반불투명한 유형, 반투명한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에 더하여 반투명한 관용어를 생성된 원인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투명성의 정도에 따른 유형과 관용성의 정도<sup>37</sup>

관용성의 정도	투명성의 정 도	관용어의 특성	예시
상	불투명한 유 형	관용어를 구성하 는 어휘 요소들 사이의 유연성이 약하여, 어휘의 개별적 의미만으 로는 관용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구들장군, 빛 좋은 계살 구, 변죽을 울리다, 산통 을 깨다, 시치미를 떼다, 오지랖이 넓다
중	반불투명한 유형	관용어를 구성하 는 어휘 요소들 을 통하여 의미 를 어느정도 예 측할 수 있는 경 우	그림의 떡, 수박 겉 핥 기, 우물 안 개구리, 미 역국을 먹다, 바가지를 끓다, 바람을 맞다, 비행 기를 태우다 등
하	반투명한 유 형	관용어를 구성하 는 어휘 요소들 과 관용어 사이 의 유연성이 강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의해 생성된 경우: 국수를 먹다, 시집을 가 다, 장가를 가다 등

<sup>37</sup> 문금현, 1998:220 참조



		하여, 어휘의 의미를 통하여 관용어 전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외부상황과 유사에 의해 생성된 경우: 이미 옆지른 물, 불난 데 부채질 하기, 하늘의 별 따기 등
			신체어와 결부된 행동의 유사에 의해 생성된 경우: 눈을 감아주다, 발뺌을 하다, 손을 쓰다, 눈이 멀다 등
			감정의 과장된 표현에 의해 생성된 경우: 애간장을 녹이다, 기가 막히다 등

하지만 임지룡과 문금현이 투명성 정도에 대해 ‘반투명한 유형’, ‘반불투명한 유형’이라는 용어로 나눈 것은 그 의미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김부경(2013)은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 관용어 목록을 수립하기 위해서 투명성 정도에 따라 관용어를 분류했다. 그는 교수·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관용어를 분류하였으며, 이렇게 분류한 관용어는 학습 수준별 관용어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투명도가 높은 관용어일 수록 초급 수준에 적합하며, 투명도가 낮을 수록 고급 수준의 학습 단계에 적합한 관용어로 보았다. [표13]은 그가 제시한 관용성의 정도에 따른 관용어의 분류이다.

[표 13] 김부경(2013)의 관용성의 정도에 따른 관용어 분류

저	←-----학습단계-----→		고
고	←-----투명도-----→		저
근접투명성	반불투명성	불투명성	
①의미의 연상이나 예상이 쉽다. ②신체 모습이나 행동, 감정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여 표현한 경우가 많다. ③구성 어휘가 대부분 신체 관련 어휘나 일상적 어휘이다. ④사용 빈도가 높다.	①축자 의미에서 관용 의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으나 근접투명성 관용어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의미 연결이 어렵다. ②역사적 사건, 민담, 고사성어, 개인적인 사건 등에서 유래한다. ③구성 어휘가 대부분 일반적인 어휘이다. ④사용 빈도가 보통이다. (근접 투명성 관용어 보다는 낮으나 불투명성 관용어 보다는 높다.)	①의미 연상이나 예상이 어렵다. ②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건이나 고사에서 유래 한다. ③구성 어휘가 대부분 잘 쓰이지 않는 고어나 폐어이다. ④사용 빈도가 낮다.	
< 예 >			
눈을 감아주다, 무릎을 꿇다, 손을 잡다, 손발이 맞다, 기가 막히다	그림의 떡, 미역국을 먹다, 굶어 부스럼, 우물 안의 개구리, 수박 겉 핥기	학을 떼다, 오지랖이 넓다, 시치미를 떼다, 산통을 깨다, 변죽을 울리다	

Gonzalez-rey(2015 :49)에 의하면 관용어를 이루는 요소들의 합이 관용어의 전체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관용성은 관용표현에 전체적으로 있거나, 부분적으로 있거나 또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관용성이 의미 부분과 연관되어 의미의 불투명성(opacité)과

이어진다고 본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14]와 같다.

[표 14] Gonzalez-Rey(2015)의 의미의 투명성으로 분류한 관용어의 예시

의미의 투명성	낮음(opaque) ←-----→ 높음(tranparent)		
관용성의 정도	전체적(totale)으로 있음	부분적(partielle)으로 있음	없음(inexistante)
예시	avoir avalé sa canne (태도가 부자연스럽다)	Mettre de l'eau dans son vin (주장을 완화하다)	Avoir peur (두려워하다)

Pecman(2004 :13)도 의미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관용어를 분류를 시도했다. 그는 관용어 속성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분류도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한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Pecman(2004)의 의미의 투명성으로 분류한 관용어의 예시

Les expression sémantiquement transparentes (의미상으로 투명한 표현)	Les expressions sémantiquement opaques (의미상으로 불투명한 표현)
le moment venu (행동해야 할 때) faire le pont (징검다리 휴일을 하다) dans la mesure où (…의 범위내에서) compte épargne populaire (저축예금) sous peu (곧, 즉시) les bons comptes font les bons amis ([속담] 금전 관계가 확실해야 우정이 오래간다) à bientôt (또 만납시다) tirer une conclusion (결론을 끌어내다) en présence de (-의 앞에서) procéder à une expérience (경험을 하다) démarrer une voiture (자동차에 시동	attendre jusqu'à la saint-glinglin (한없이 기다리다) se mettre sur son trente-et-un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다) après moi le déluge ! (내일의 일은 내일 걱정하라 !)

을걸다) moteur à essence (가솔린 엔진) de même que (~와 마찬가지로)	
---	--

관용어를 의미의 투명성에 따라 나눈 연구들을 통하여 관용성, 의미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관용어를 분류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물론 관용성과 의미의 투명성은 관용어의 의미의 측면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아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미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관용어를 분류하는 것은 관용어 목록을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앞서 선정한 기본 어휘를 포함하는 관용어들을 위의 연구 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의미의 투명성에 따른 관용어 분류 기준은 [표16]과 같다.

[표 16] 관용어를 의미의 투명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기준

투명한 관용어	반투명한 관용어	불투명한 관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용어 구성 어휘를 통하여 관용어의 전체 뜻을 쉽게 유추해 낼 수 있고, 비유적 의미는 거의 없음</li> <li>• ⇒구성어휘의 의미를 잃지 않는 관용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용어 구성 어휘를 통해 관용어 전체 뜻의 파악이 어느정도 되면서, 비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li> <li>• ⇒구성어휘의 의미를 일부분 가지는 관용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용어 구성 어휘의 의미 합만으로는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강한 비유적 의미를 내포함</li> <li>• ⇒구성어휘의 기본적인 의미를 전혀 내포하지 않는 관용어</li> </ul>

관용어를 투명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서 특히 ‘투명한 관용어’와

‘반투명한 관용어’사이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웠다. 예를 들어, «aller trop loin»와 같은 표현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너무 멀리 가다’로 표현되며, 이 표현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표현은 ‘과장하다’라는 비유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멀리 갔다’라는 표현은 ‘실제 거리상으로 멀리 갔다’로 해석될 수 있지만, 대화 상에서는 비유적 의미로 ‘너무 과장한다, 도를 넘었다’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이렇게 글자 그대로의 표현도 가지면서 동시에 비유적인 의미도 갖고 있을 때는 반투명한 관용어에 포함을 시켰다. 투명한 관용어에는 비유적 의미가 거의 없으며,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통해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관용어를 포함시켰다.

#### 4.1.3.1.투명한 관용어

의미가 투명한 관용어는 관용어를 이루고 있는 어휘 요소들의 의미의 합이 관용어 전체의 뜻과 거의 일치 하는 경우이며 비유적인 의미가 거의 없는 경우를 투명한 관용어로 보았다. 위의 [표17]는 투명한 관용어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sup>38</sup> 투명한 관용어에는 연어, 속담·격언이 포함된다. 연어는 앞서 정의 했듯이 비유적 의미가 없으므로 투명한 관용어는 연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voir chaud(덥다)»는 «avoir»동사의 여러 의미 중에 ‘(병, 증세, 상태)가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와 «chaud»의 ‘더위’라는 의미가 합해져서 ‘덥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어휘 요소들이 비유적 의미를 갖지

---

<sup>38</sup> 투명성을 정도로 관용어를 분류한 전체 내용은 부록의 [표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않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의미 파악이 가능한 관용어는 투명한 관용어로 분류하였다. 또한 «faire sa chambre(청소하다)»와 같은 표현 역시 «faire»동사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 중에 ‘(청소를) 하다, 정돈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sa chambre»는 ‘sa’라는 소유형용사가 함께 사용되긴 했으나 ‘방’이라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상실하지는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투명한 관용어로 분류하였다.

속담·격언 중에서도 글자 그대로의 의미 해석을 통하여 전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투명한 관용어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속담·격언을 살펴본 결과, 우리 나라에서도 같거나 비슷하게 해석되는 표현들 또는 보편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의미 파악이 쉬운 표현들이었다. 예를 들어, «Santé passe richesse (건강은 부보다 낫다) », «vivre comme chien et chat (개와 고양이 사이, 원수지간)»과 같은 표현은 의미상으로 해석했을 때, 강한 비유적 의미가 없으며, 한국에서도 ‘개와 고양이처럼 산다’라는 표현은 자연스레 ‘원수지간’으로 이해되는 보편적인 진리를 내포하는 표현이므로 투명한 관용어로 분류하였다.

[표 17] 투명한 관용어의 유형별 분류 예시

관용어 범주	관용어 표현
연어	avoir chaud, avoir raison, Avoir soif, porter bonheur à, avoir envie de, à date fixe, faire un somme, dans longtemps, à main nue ...
속담·격언	Le silence est d'or, Santé passe richesse, vivre comme chien et chat...

#### 4.1.3.2. 반투명한 관용어

반투명한 관용어는 관용어를 구성하는 어휘들을 통하여 관용어 전체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비유적인 의미도 함께 전달하기 때문에 단순히 구성요소의 의미만으로는 관용어 전체의 의미 파악이 어렵다. [표18]은 반투명한 관용어를 구분하면서 범주에 따른 분류를 한 것이다. 반투명한 관용어에 속하는 관용어를 범주에 따라 구분한 결과, 관용어구, 관용문장, 속담·격언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sup>39</sup>

[표 18] 반투명한 관용어의 유형별 분류 예시

관용어 범주	관용어 표현
관용어구	Aller trop loin, rester les bras croisés, trouver chaussure à son pied, par degré, gagner son bifteck, avoir la main ouverte...
관용문장	Je vous prie de m'excuser, Ça fait combien?, Il y a progrès...
속담·격언	changer d'opinion tous les quinze jours, On ne fait pas d'omelettes sans casser des œufs, D'un sac à charbon ne peut sortir blanche farine...

예를 들어, « gagner son bifteck (밥벌이를 하다) »의 경우는 « gagner(벌다) » 와 « bifteck(스테이크) »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만 해석할

<sup>39</sup> “Je vous en prie”, “de rien”, “Bonne anéen”등과 같은 관용문장과 관용어구는 교과서에서 기본표현으로 수록되었기 때문에 목록에는 의사소통 기본표현보다는 연어, 비유적 의미를 갖는 관용어구, 속담·격언을 더 많이 수록하였다.

경우에는 본래의 뜻을 유추해낼 수 없다. « bifteck »이라는 것이 ‘생계’라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 rester les bras croisés »는 ‘팔을 곧 채로 있다’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수수방관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반투명한 관용어에 포함시켰다. 이런 경우들과 같이 관용어를 이루는 어휘가 비유적 의미를 가질 경우는 반투명한 관용어로 포함시켰다.

비유적인 의미를 갖지 않지만 반투명한 관용어로 포함시킨 예외적인 표현들도 있다. 예를 들어, « par degré », « À plein »과 같은 표현은 비유적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구성어휘 각각이 합해지더라도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반투명한 관용어에는 비유적 의미를 갖는 표현만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예외적으로 이런 표현들은 투명한 관용어와 반투명한 관용어 사이에 포함된 관용어로 고려하고, 본 연구에서는 반투명한 관용어에 포함시켰다.

속담·격언에는 « changer d'opinion tous les quinze jours »은 ‘의견을 자주 바꾸다’라는 뜻인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의견을 바꾼다’라는 뜻으로 어느 정도의 의미 파악은 가능하지만 « tous les quinze jours »라는 표현을 통해 ‘자주’라는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반투명한 관용어로 포함시켰다. « On ne fait pas d'omelettes sans casser des œufs »은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관용어 전체 뜻을 이해할 수 없다. ‘계란을 깨다’라는 것이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용어는 반투명한 관용어 목록에 포함시켰다.



### 4.1.3.3. 불투명한 관용어

불투명한 관용어는 관용어를 구성하는 어휘의 의미만으로는 전체 의미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경우다. 관용어를 구성하는 어휘가 쉬운 어휘로 구성될지라도 그 의미의 합이 관용어 전체의 뜻과 다르며 비유적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는 불투명한 관용어에 속한다. 또한 불투명한 관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지식 또는 어원의 기원 등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아래의 표는 불투명한 관용어를 범주 별로 구분한 것이다.

[표 19] 불투명한 관용어의 유형별 분류 예시

관용어 범주	관용어 표현
관용어구	avoir la grosse tête, porter le chapeau, aller au charbon, raconter des salades...
관용문장	J'ai déjà donné !, C'est l'enfance de l'art, Il était moins cinq...
속담 · 격언	Chose dite, chose faite, Tant vaut l'homme, tant vaut la terre, Il n'est si méchant pot qui ne trouve son couvercle...

[표19]과 같이 불투명한 관용어에는 관용어구, 관용문장, 속담 · 격언이 포함된다. 관용어구에 포함되는 « avoir la grosse tête »는 ‘거드름을 피우다’라는 뜻을 갖는다. 하지만 구성어휘만을 통해서는 관용어 전체의 뜻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관용문장인 « J'ai déjà donné ! »는 ‘이미 했다, 겪었다’라는 표현이므로 구성 어휘를 글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실수를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속담인 « Il n'est si méchant pot qui ne trouve son

couvercle »은 ‘짚신도 제 짝이 있다’라는 표현이지만 우리 나라의 표현과는 다르게 ‘냄비와 뚜껑’과 관련되므로 의미 파악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투명한 관용어로 분류하였다. 위의 경우들과 같이 관용어의 구성 어휘를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관용어 전체의 뜻에 접근할 수 없는 관용어들을 불투명한 관용어로 분류하였다.

## 4.2. A2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목록 제시

4.1.에서 관용어를 의미의 투명성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관용어를 학습수준별로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A2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투명한 관용어와 비유적 의미가 약한 반투명한 관용어는 A2수준의 학습자에게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관용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불투명한 관용어일지라도 A2수준의 학습자에게 완전히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구성어휘 자체가 A2수준에게 어렵지 않고 사용빈도가 높다면, 교사의 설명과 함께 학습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일상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문화적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 유용성이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관용어를 의미의 투명성 정도를 기준으로 나눈 관용어를 토대로 하여 다시 두 개의 기준으로 관용어 목록을 제시할 것이다. 먼저 첫번째 기준은 ‘교수-학습 방법의 차이’이며, 두번째 기준은 ‘명칭론’이다.

### 4.2.1. 교수-학습 방법의 차이에 따른 관용어 목록

4.2.1.에서는 ‘교수-학습의 방법의 기준’에 따라 관용어를 분류해보았다. ‘투명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아직 언어 수준이 높지 않

은 A2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의미상으로 쉬운 관용어를 추려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 쉬운 관용어만을 제시하는 것은 관용어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사회언어학적, 문화적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구성 어휘가 학습 수준에 적합한 관용어’가 제시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관용어’를 목록에 함께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관용어 목록이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A2수준의 학습자에게 필요한 의미가 어렵지 않은 관용어와 의미 파악은 다소 어렵지만 프랑스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관용어에 대한 목록을 아래의 [표20]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20]은 ‘교수-학습 방법’의 차이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관용어 목록 제시를 예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0] 교수-학습 방법의 기준에 따른 관용어 목록의 예시**

교수-학습 방법		
기준1	기준2	기준3
-의미가 투명한 관용어 -관용어의 형태와 뜻이 어렵지 않아 사전검색 이나 교사의 특별한 지 도가 크게 필요하지 않 은 경우	-의미가 반투명한 관용 어 -관용어에 비유적 의미 가 포함되어 있어, 사 전검색과 교사의 지도 가 필요한 경우	-의미가 불투명한 관용 어 -구성어휘의 의미는 A2수준의 학습자에게 어렵지 않으나, 관용어 의 전체적 의미가 비유 적이므로 교사의 지도 가 크게 요구되는 관용 어 (관용어의 기원, 배경 지식에 대한 정보가 필 요한 경우)

예시		
Avoir mal Avoir froid Avoir chaud avoir raison Faire silence Vivre comme chien et chat	Gagner sa croûte Passer la main Faire une grasse matinée Tuer le temps	Raconter des salades Casser sa pipe Cracher dans la soupe Faire un malheur

먼저 첫번째 기준은 학습자가 외부의 도움없이 관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교사의 도움이나 사전이 없더라도 관용어에 대한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관용어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 avoir mal, avoir froid, avoir chaud »등과 같이 수업시간에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어휘가 포함된다. 기준1에 포함될 수 있는 관용어는 의미 외에도 구조 또한 어렵지 않은 ‘연어’ 또는 형태가 규칙적이지 않은 ‘관용문장’이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거의 일치하여 학습자 스스로 이해가 쉬운 관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두번째 기준은 관용어를 이루는 어휘 중에 교육과정 기본어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휘가 포함되어 있거나, 기본 어휘이더라도 다의어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모를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이다. 기준2에 해당하는 관용어는 주로 의미가 반투명한 비유적 표현인 ‘관용어구’이다. 예를 들어, « Gagner sa croûte(밥벌이를 하다) »와 같은 표현은 주로 구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교사는 구어로 사용된다는 지도를 해야한다. « passer la main(포기하다) »와 같은 경우 비유적 의미가 내포된 표현이기 때문에 학습자 혼자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 설명이 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 기준은 관용어를 이루는 어휘가 A2수준의 학습자에게 크게 어렵지 않은 어휘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구성 어휘가 의미를

상실하여 관용어 전체의 뜻을 학습자가 혼자 이해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관용어의 어원이나 문화적 지식이 필요할 때이다. 예를 들어, « raconter des salades(거짓말 하다) »는 구성 어휘의 수준이 A2수준의 학습자에게 어렵지는 않지만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지 않고, 비유적 의미가 강한 관용어이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를 해석하더라도, 왜 이 표현이 이런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raconter des salades »에서의 ‘salades’는 우리가 알듯이 샐러드를 뜻하는데, 샐러드는 여러 채소, 과일들이 혼합되어 먹는 음식이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할 때 과장이나 유머를 섞게 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 과장이 되어 버리듯이 프랑스인들은 이런 상황을 샐러드에 비유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 faire un malheur »는 글자 의미 그대로 ‘불상사를 만들다’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어적 표현인 ‘대성공을 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으므로 교사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기준3으로 나눴다.

### 1) 교수-학습 방법 기준1에 따른 관용어 목록

[표 21] 교수-학습 방법 기준1에 따른 관용어 목록

교수-학습 방법	
기준 1	
-의미가 투명한 관용어 -관용어의 형태와 뜻이 어렵지 않아 사전검색이나 교사의 특별한 지도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	
관용어	
1.	aller ensemble
2.	aller et venir
3.	avoir beaucoup d'appétit
4.	avoir besoin de qn/qc/ inf
5.	avoir chaud

6.	avoir froid
7.	avoir mal
8.	avoir soif
9.	avoir tort
10.	avoir peur
11.	avoir raison
12.	boire un verre
13.	casser du bois
14.	changer de visage
15.	c'est l'eau et le feu
16.	couper les vivres
17.	dans longtemps
18.	en place
19.	être blanc comme neige
20.	être de glace
21.	faire cadeau de qc à qn
22.	faire du bruit
23.	faire fausse route
24.	faire le baisemain
25.	faire silence
26.	faire un somme
27.	faire une toilette de chat
28.	faire une promenade
29.	faire peur à
30.	faire sa chambre
31.	fumer comme un pompier
32.	il est besoin de+ inf
33.	il faut toujours réfléchir avant d'agir
34.	Il n'y a pas de fumée sans feu
35.	jeter de l'huile sur le feu
36.	jouer la comédie
37.	l'argent ne fait pas le bonheur
38.	la lune de miel
39.	marcher sur des oeufs
40.	ne pas fermer l'œil
41.	on apprend à tout âge.
42.	perdre sa place
43.	perdre sa route
44.	porter bonheur à qn
45.	pour la vie

46.	prendre de l'âge
47.	prendre en photo
48.	prendre le temps de+ inf
49.	prendre la peine de+ inf
50.	prendre peur
51.	santé passe richesse.
52.	savoir, c'est pouvoir
53.	simple comme bonjour
54.	sur place
55.	tenir un journal
56.	un malheur n'arrive jamais seul
57.	vivre comme chien et chat

## 2) 교수-학습 방법 기준2에 따른 관용어 목록

[표 22] 교수-학습 방법 기준2에 따른 관용어 목록

교수-학습 방법	
기준2	
-의미가 반투명한 관용어 -관용어에 비유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사전검색과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	
관용어	
1.	aller selon le vent 대세[시류]에 따르다
2.	attendre son heure 기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다
3.	avoir des lettres 교양이 있다
4.	avoir du goût 센스가 있다
5.	avoir la grosse tête 거드름을 피우다
6.	avoir la main malheureuse 1. 서투르다, 손재주가 없다 2. [비유] (선택을 잘못하여) 실패하다
7.	avoir le cœur gros 서글프다
8.	avoir le coup de foudre 첫 눈에 반하다

9.	avoir le melon 거드름을 피우다
10.	avoir le sommeil léger 잠귀가 밝다
11.	avoir lieu -이 일어나다
12.	bien entendu 물론, 당연히
13.	boire la tasse (수영하다) 물을 마시다
14.	cache son jeu 자신의 의도를 숨기다
15.	ce n'est pas la mer à boire 그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16.	C'est au fruit qu'on connaît l'arbre. [속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17.	C'est le même prix. 마찬가지로이다
18.	connaître la musique [구어] 사정에 밝다, 수완이 좋다
19.	couper la poire en deux 공평하게 양보하다
20.	couper les ponts 관계를 단절하다, 절교하다
21.	courir les rues 혼하다
22.	donner le feu vert 행동개시를 허락하다
23.	donner un coup de main 도움을 주다
24.	eclairer la lanterne de quelqu'un ...에게 깨우쳐주다
25.	être en train de -하는 중이다
26.	être lessivé 매우 피곤하다
27.	écrire comme un chat 갈겨쓰다
28.	en place 제자리에, 잠자코
29.	faire le pont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낀 날을 휴일로 정하다
30.	faire une grasse matinée 늦잠자다
31.	fermer les yeux sur -에 대해 눈을 감아주다, 모른 척 하다
32.	fondre la glace 어색한 분위기가 녹다
33.	Fondre comme neige au soleil 양지 밭에 봄눈 녹듯이 하다, 순식간에 사라지다
34.	gagner sa croûte 밥벌이를 하다
35.	gagner son bifteck 밥벌이를 하다



36.	il y a progrès [구어] 좋아지다, 잘 되어가다
37.	jeter des fleurs à qnn 찬사를 보내다
38.	jeter l'argent par les fenêtres 낭비하다
39.	jeter l'éponge 포기하다
40.	jeter la pierre 비난하다
41.	jouer avec le feu 불장난을 하다, 위험한 짓을 하다
42.	lever le pied 중단하다, 멈추다
43.	Le bon marché coûte toujours cher [속담] 싼게 비지떡
44.	la nuit, tous les chats sont gris. [속담] 어둠은 모든 것을 가린다
45.	manger de l'argent (사업에서) 돈을 잃다, 돈을 낭비하다
46.	mettre qc au frigo 넣어두다 ; 동결하다
47.	montrer du doigt 손가락질 하다
48.	montrer les dents 위협하다
49.	passer la main 실패하다
50.	perdre la face 체면을 잃다
51.	perdre la tête 분별을 잃다, 당황하다
52.	perdre le nord [구어] 방향을 잃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53.	perdre sa langue 말을 잃다
54.	rentrer dans sa coquille 몸을 도사리다
55.	s'en laver les mains de qch - 에서 손을 씻다(떼다)
56.	sauver la face 체면을 지키다
57.	savoir par cœur 암기하다
58.	se casser la voix 목이 쉬다
59.	se mettre au vert 전원에서 휴식하다
60.	Se tromper d'adresse 번지수를 틀리다
61.	sortir avec quelqu'un 데이트하다
62.	tenir tête 반항하다
63.	tomber d'accord 합의에 이르다
64.	tomber de haut 낙담하다
65.	tourner la page 다른 일로 넘어가다
66.	tuer le temps 시간을 보내다

67.	Quand on n'a pas de tête, il faut avoir des jambes [속담] 기억력이 나쁘면 여러 번 같은 일을 하게 된다
68.	Un peu d'aide fait grand bien [속담] 작은 도움도 큰 역할을 한다
69.	voir du pays 여행하다

### 3) 교수-학습 방법 기준3에 따른 관용어 목록

[표 23] 교수-학습 방법 기준3에 따른 관용어 목록

교수-학습 방법	
기준3	
-의미가 불투명한 관용어 -구성어휘의 의미는 A2수준의 학습자에게 어렵지 않으나, 관용어의 전체적 의미가 비유적이므로 교사의 지도가 크게 요구되는 관용어 (관용어의 기원, 배경지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용어	
1.	appeler un chat un chat 직설적[노골적]으로 말하다
2.	apporter de l'eau au moulin...에게 자금을 대다
3.	avoir bon dos 1. 죄[책임]를 뒤집어 쓰다 2. 좋은 구실이 되다
4.	avoir bonne conscience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반의)
5.	avoir la main verte 화초를 잘 가꾸다
6.	avoir la tête dans les nuages몽상하다
7.	avoir le cafard [구어] 울적하다
8.	avoir le coeur sur la main너그럽다
9.	Avoir le bras long 인맥이 넓다
10.	avoir un boeuf sur la langue 끈질기게 침묵을 지키다
11.	avoir un poil dans la main [비유] 매우 게으르다
12.	broyer du noir 비관하다, 슬픈 생각에 잠기다

13.	bel et bien 완전히
14.	casser du sucre sur le dos de qnn[구어]헐뜯다,...의 험담을 하다
15.	casser les pieds [구어] ...을 귀찮게 굴다
16.	casser sa pipe 죽다
17.	couper le cordon [비유] 독립하다, 어른이 되다
18.	couper les cheveux en quatre [구어] 지나치게 세밀히 따지다
19.	cracher dans la soupe [구어] 도움이 되는 것을 경멸하다, 주어진 것에 트집을 잡다
20.	découvrir le pot aux roses 비밀 또는 진실을 캐내다
21.	demander la lune 말도 안되는 것을 요구하다
22.	donner carte blanche 백지위임하다
23.	donner sa langue au chat 단념하다, 포기하다
24.	en faire un fromage (터무니없이) 대단하게 여기다
25.	en mettre sa main au feu 손에 장을 지지다
26.	être au parfum (...의) 감을 잡다, 낚새를 채다
27.	être aux anges 몹시 기뻐하다
28.	être chocolat (구어) 속다, 낙심하다
29.	faire bon[mauvais] ménage 양립하다, -와 사이가 좋다
30.	faire long feu 일을 질질 끌다
31.	faire son chemin 출세를 하다
32.	faire un malheur 1.불상사를 일으키다 2.[반어] 대성공을 거두다
33.	l'habit ne fait pas le moine 빛 좋은 개살구
34.	la cerise sur le gâteau 금상첨화, 꿩먹고 알먹고
35.	manger dans la main 길들여져 있다
36.	manger son pain blanc 즐거운 일부터 시작하다
37.	mettre de l'eau dans son vin 주장을 완화하다
38.	mettre en boîte 놀리다
39.	mettre la main au feu 맹세하다
40.	mettre les pieds dans le plat 무례한 언동을 하다
41.	monter sur ses grands chevaux [구어] 기세가 등등하다, 발끈하다
42.	n'avoir pas froid aux yeux 간이 크다, 대답하다

43.	ne pas manquer d'air 얼굴이 두껍다
44.	passer un savon [구어] ...을 호되게 꾸짖다
45.	porter le chapeau (누명, 죄 따위를) 뒤집어 쓰다
46.	poser un lapin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다
47.	poser un lapin 바람맞히다
48.	prendre de haut 거만하게 굴다
49.	raconter des salades 거짓말을 하다
50.	se casser le nez [구어] 실패하다
51.	se mettre le doigt dans l'œil 큰 잘못을 저지르다
52.	se mordre les doigts 후회하다
53.	tirer son chapeau 경의를 표하다
54.	tomber à l'eau 수포로 돌아가다
55.	tomber bien 일이 좋게 되다
56.	tomber dans les pommes 기절하다
57.	un coup d'épée dans l'eau 칼로 물베기
58.	voir le jour 태어나다, (사물이) 출현하다, (책 따위가) 출판되다

#### 4.2.2. 명칭론에 따른 관용어 목록

‘명칭론(Onomasiologie)’은 하나의 개념과 관련한 다양한 관용어를 제시하는 방법론이다(Cavalla, 2009:7). 예를 들어, ‘공포(*la peur*)’라는 개념과 관련한 관용어에는 « *avoir les jetons* », « *froid dans le dos* », « *avoir la chair de poul* »과 같이 ‘*peur*’라는 어휘가 포함되지 않아도 학습자는 ‘공포’라는 개념과 관련한 여러 표현들을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토대로, Gonzalez-Rey(2010:11)는 “가사일(*les tâches ménagères*)이라는 총칭적인 개념과 관련한 관용어로 « *faire la lessive, faire le ménage, laver la vaisselle, mettre la table* », 일(*les affaires*)이라는 개념과 관련한 관용어로 « *arrêter un projet, dresser un bilan, conclure un*

*marché, signer un accord* »등의 표현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Pecman(2004 :140)도 의미의 내용에 따라 관용어를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가 예로 제시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24] Pecman(2004)의 의미의 기준에 따른 관용어의 분류 예시

개념(NOTION)	예시(EXEMPLES)
시간(Temps)	at dusk → à la nuit tombante (해질 녘에) before you could say Jack Robinson → en moins de deux (아주 빨리)
인접(Proximité)	at hand → à portée de main (손이 닿는 곳에) in the proximity of → à proximité de (-근처에)
태도(Attitude)	to be open-handed → avoir le coeur sur la main (너그럽다) out of despair → par désespoir (절망한 나머지)
속도(Vitesse)	at top speed → à toute allure (전속력으로) to pick up/lose speed → prendre/perdre de la vitesse (속도가 줄다)
위험(Danger)	to put sb in danger → mettre qn en danger (-을 위태롭게 하다) reckless driving → conduite imprudente/dangereuse (무모한 운전)

Cavalla(2009:8)에 의하면 이러한 접근법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자가 하나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용어 조직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많은 단어를 학습해야하는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접근법을 토대로 한 관용어 목록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명칭론 접근법을 중심으로 관용어 목록을 수립하여 A2수준의 초급학습자를 위해 하나의 개념과 관련한 여러 관용표현들을 학습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배워야 할 ‘개념’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개념’을 정하는 기준은 학습자의 수준, 교재의 단위 별 목표, 교수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 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교육과정 기본 어휘를 포함하는 관용어’라는 기준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용어 목록에 포함된 관용어 중 유사한 개념을 뜻하는 것들끼리 묶어 개념 별로 제시해야 했다. 따라서 목록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앞서 투명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관용어 중에서 A2수준의 학습자에게 의미상으로 쉬운 난이도인 투명한 관용어와 반투명한 관용어를 개념 별로 정리하였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본어휘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높은 빈도로 사용되며<sup>40</sup>, A2수준의 학습자 수준에 어렵지 않은 어휘로 이뤄진 관용어를 목록에 포함시키는 단계를 거쳤다. 관용어 목록은 다음의 [표25]와 같다.

[표 25] A2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개념별 관용어 목록

	개념(의미)	관용어	투명성의 정도
1.	병, 고통 (Une maladie)	Malade comme en chien 매우 아프다	불투명
		Avoir une fièvre de cheval 열이 아주 많다	불투명
2.	공포, 두려움 (Une peur)	avoir peur 두려워하다, 겁내다	투명
		prendre peur 겁먹다	투명
		faire peur à ...에게 겁을 주다,...을 무섭게 하다	투명

---

<sup>40</sup> Cassagne, J. (1995). *101 French idioms : Understanding French language and culture through popular phrases*, Caillies, S. (2009). *Descriptions de 300 expressions idiomatiques: familiarité, connaissance de leur signification, plausibilité littérale, «décomposabilité» et «prédictibilité»*, Chollet, I., & Robert, J. (2008). *Les expressions idiomatiques* 을 참조

		Avoir une peur bleue 매우 무섭다	반투명
		Avoir la chair de poule 닭살이 돋다	반투명
		Avoir les jetons 무섭다	불투명
3.	분노, 화남 (une colère)	voir rouge 매우 화나다	불투명
		Monter sur ses grands cheveux 격분하다	불투명
		Une colère noire 격분	반투명
4.	사고, 우연 (un accident)	en cas d'accident 사고가 날 경우	반투명
		Accident de parcours [비유] (계획의 실행 중에 일어난) 사고, 우발적인 일	반투명
5.	잠 (un sommeil)	dormir comme un ange (un bienheureux) 평화롭게 잠을 자다	반투명
		avoir le sommeil léger 잠귀가 밝다	반투명
		dormir sur ses deux oreilles안심하고 자다	반투명
		Passer une nuit blanche 날밤을 새우다	반투명
6.	시간, 시기 (un temps)	Il fait grand soleil. 해가 중천에 뜨다, 대낮이다.	반투명
		tomber à point 때 마침 나타나다, 시기가 아주 좋다	반투명
		Il y a temps pour tout. [속담] 무슨 일이나 때가 있다	반투명
7.	사랑 (un amour)	sortir avec quelqu'un 데이트하다	반투명
		recevoir un coup de soleil [구어] 한눈에 받다	불투명
		La jalousie est la sœur de l'amour [속담] 질투는 사랑의 자매이다	투명
8.	지식, 배움 (une connaissance)	Savoir, c'est pouvoir. 아는 것이 힘이다	투명
		Se faire la main (도구 따위의 다루는 법을) 손에 익히다, 요령을 배우다	반투명
		Être à bonne école 좋은 선생 밑에 있다, 좋은 가르침을 받고 있다	반투명
9.	미래 (un avenir)	voir loin 멀리까지 보다, 통찰력이 있다, 선견지명이 있다	반투명
		à venir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반투명
10.	게으름, 나태함 (une paresse)	ne pas lever le petit doigt 조금도 애쓰지 않다	반투명
		L'oisiveté est la mère de tous les vices	투명

		[속담] 나태는 모든 악덕의 원천	
11.	건강 (une santé)	Santé passe richesse. [속담] 건강이 부(富)보다 낫다	투명
12.	동의, 합의, 수 긍, 승낙 (un accord)	donner le feu vert à qn ...에게 행동개시를 허락하다	반투명
		tomber d'accord 합의에 이르다	반투명
13.	의견, 생각 (un avis)	Deux avis valent mieux qu'un [속담] 여럿이 의견을 합치면 좋은 꾀가 생긴다	반투명
		passer du blanc au noir (의견·태도 따위가) 완전히 바뀌다	불투명
		mettre de l'eau dans son vin 주장을 완화하다, 태도를 누그러뜨리다	반투명
		changer d'opinion tous les quinze jours [구어] 의견을 자주 바꾸다	반투명
		faire demi-tour [구어] 의견을 180도 바꾸다	반투명
14.	행동, 처신 (un comportement)	Jouer le jeu 원칙에 따라 행동하다	반투명
		marcher droit올바르게 처신하다, 순종적이다	반투명
		acheter une conduite [구어]행실을 고치다	불투명
		marcher sur des œufs[비유] 신중하게 행동하다	반투명
15.	인생, 삶 (une vie)	vivre au jour le jour 그날 벌어 그날 살다	반투명
		être comme un rat dans un fromage 유복하게 [안락하게] 살다	반투명
		Gagner son pain 생계를 유지하다	반투명
		Le plus riche en mourant n'emporte qu'un linceul. [속담] 아무리 부자라도 죽을 때는 수의 한 벌뿐이다	반투명
16.	절약, 저축 (une économie)	regarder à la dépense 돈을 절약하다, 인색하다	투명
		Mettre de côté 따로 떼어두다, 저축하다	반투명
17.	기쁨 (une joie)	Prendre son pied 아주 기쁘다	불투명
		Être aux anges 매우 행복하다	불투명
		avoir le fou rire 웃음을 그치지 못하다	반투명
		Crier victoire 승리를 부르짖다	투명



18.	반성, 성찰 (une réflexion)	rentrer en soi 자신을 되돌아 보다	반투명
		donner à réfléchir 깊이 생각하게 하다	반투명
19.	당황 (une confusion)	perdre le nord [구어] 방향을 잃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반투명
		perdre la tête 당황하다	반투명
		vouloir rentrer sous terre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을 생각이다	반투명
20.	쉬움 (une facilité)	Simple comme bonjour 매우 쉽다	투명
		passer comme une lettre à la poste 매우 쉽다	반투명
		Ce n'est pas la mer à boire 어렵지 않은 일이다	반투명
		ça ne mange pas de pain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불투명
21.	다툼, 싸움, 저항 (un conflit)	faire face à qc/ [비유] ...에 대항하다,...에 대처하다	반투명
		faire le méchant 적의를 드러내다,[구어] 격렬하게 항의하다	반투명
		nager contre le courant 대세에 역행하다, 시류에 거역하다	반투명
		tenir tête 대항하다, 반항하다, 대들다	반투명
		faire du bruit 시끄럽게 하다	투명
22.	변화 (un changement)	changer de visage 안색[표정]이 변하다	반투명
		changer de ton 어조를 바꾸다,[비유] 태도를 바꾸다	반투명
23.	행운 (une chance)	porter bonheur à qn...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다	투명
		tirer le bon numero 운이 좋다	반투명
24.	돈 (un argent)	manger de l'argent(사업에서) 돈을 잃다, 돈을 낭비하다	반투명
		L'argent est rond, il faut qu'il roule [속담] 돈은 둥글어 구르게 마련이다, 돈은 쉬 빠져나간다	반투명
		être en rouge [비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적자이다	반투명
		le plein tarif 할인되지 않은 요금	투명
25.	확신 (une assurance)	Prudence est mère de sûreté [속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반투명

		Il n'y a pas photo 아주 확실하다	불투명
26.	포기, 실패 (un échec)	rester les bras croisés 무위도식하다, 수수방관하다	반투명
		avoir la main malheureuse [비유] (선택을 잘못하여) 실패하다	반투명
		passer la main [비유] 포기하다, 단념하다	반투명
		montrer le derrière 도망가다 = s'enfuir, se sauver	반투명
		lever l'ancre [비유·속어] 가버리다, 달아나다 = s'en aller	반투명
		laisser tomber 집어치우다, 그만두다	반투명
		envoyer promener qc ...을 내던지다, 포기하다, 퇴짜를 놓다	불투명
		Finir en queue de poisson 용두사미로 끝나다	반투명
27.	고난, 시련 (une souffrance)	enlever le pain de la bouche à ...의 음식[생계수단]을 뺏다	반투명
		J'ai déjà donné! [구어] 이미 했다[겪었다],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다	불투명
		Ce n'est pas tous les jours dimanche [구어]인생에는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반투명
		À quelque chose malheur est bon. [속담] 불행도 어떤 일에는 행복이다, 전화위복	반투명
		tomber de haut [비유] 낙담하다, 좌절을 맛보다	반투명
28.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une anxiété)	Un malheur n'arrive jamais seul [속담]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투명
		Avoir des idées noires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반투명
		Se voiler la face (부끄러움·불쾌감·두려움 따위로 인하여) 얼굴을 가리다	반투명
29.	잘못 (une faute)	ne pas fermer l'œil 한숨도 못자다	투명
		fermer les yeux sur qc [비유] ...을 눈감아주다,	반투명
		faire le singe 우스운 짓을 하다	불투명
30.	슬픔	Faire un faux pas 실수를 하다	반투명
		avoir le cœur gros (lourd) 서글프다	반투명

	(une tristesse)	C'est pas la joie !(구어)좋아할 상황이 아니군!	반투명
31.	솔직함 (une franchise)	dire bien haut 분명히[숨김없이] 말하다	불투명
		jeter qc à la face de qn [비유] ...을 ...에게 대놓고[솔직하게] 말하다	반투명
32.	가치, 값 (une valeur)	La belle plume fait le bel oiseau [속담] 옷이 날 개이다	반투명
		n'avoir pas de prix 값을 따질 수가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	반투명
		à prix d'or 아주 비싼 값으로, 거금을 들여서	투명
		hors de prix 아주 값비싼, 터무니없이 비싼	반투명
33.	거만함, 과장 (une arrogance)	marcher la tête haute 으스대며 걷다, 거리낌 이 없다	반투명
		aller trop loin 과장하다, 도를 넘다, 지나치다	반투명
		En faire (tout) un fromage 과장하다	불투명
34.	인내, 참음, 기 다림 (une endurance)	L'eau qui tombe goutte à goutte cave la pierre. [속담] 낙숫물이 댕돌을 뚫는다	반투명
		L'arbre ne tombe pas du premier coup. [속담] 첫 술에 배부르랴	반투명
		ne rien perdre pour attendre 기다린다고 손해 볼 것은 없다	투명
35.	기회 (une occasion)	C'est maintenant ou jamais 지금이 다시없는 기회다	반투명
		Si la montagne ne vient pas à nous, il faut aller à elle 기회는 스스로 구해야 한다	반투명
		être au rendez-vous (일이) 바라던 참에 일어 나다	불투명
		Il faut battre le fer quand il est chaud. [속담]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한다, 기회 가 왔을 때 이를 잡아야 한다	반투명
		attendre son heure 기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 다	반투명
36.	성공 (un succès)	faire recette (공연·전시회 따위가) 성공을 거 두다	투명
		Petit poisson deviendra grand. [속담] 대성할 인물이다	반투명

		Faire son chemin 성공하다	불투명
		Faire un malheur (예기치 않은)대성공을 하다	불투명
		prendre son essor 비약하다, 발전하다	반투명
37.	바람, 요구 (un désir)	avoir besoin de qn/qc/ inf ...이[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명
		Il est besoin de+ inf ...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명
		avoir envie de qc/ inf ...을 가지고[하고] 싶다	투명
38.	휴식 (un repos)	se mettre au vert 전원에서 휴식하다	반투명
		tuer le temps 이력저력 시간을 보내다, 심심 풀이를 하다	반투명
39.	능력, 숨씨 (une capacité)	Il faut faire le pas selon la jambe. [속담] 분수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반투명
		être au pouvoir de qn....의 능력 범위 안에[권한내에] 있다	반투명
		avoir la main verte화초를 잘 가꾸다	불투명
40.	분위기 (une ambiance)	être partout chez soi 편안하게 느끼다	반투명
		ennuyeux comme la pluie 몹시 지루한	반투명
41.	비꼼, 비난 (une ironie)	C'est l'hôpital qui se moque de la charité 숲이 검정 나무란다(퐁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불투명
		C'est gros comme une maison 그거 굉장하다 [지나치다]	불투명
		découvrir l'Amérique [비꼼] 이미 알려진 것을 발견하다	불투명
42.	죽음 (une mort)	dire adieu au monde 세상을 하직하다	반투명
		Y passer 죽다	불투명
		descendre au tombeau 죽다	반투명
43.	노력, 수고 (un effort)	Toute peine mérite salaire [속담] 모든 노력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반투명
		prendre la peine de+ inf...하는 수고를 하다	투명
		perdre sa peine헛수고하다	반투명
44.	관대함, 인심 (une générosité)	Avoir bon cœur 친절하다	반투명
		Avoir le cœur sur la main 너그럽다	불투명
		Donner sa chemise 아주 너그럽다	불투명
		ne pas avoir rond 아량이 없다	반투명

45.	정도, 상태 (un degré)	par degré 서서히, 조금씩	반투명
		À plein 가득히, 완전히	반투명
		au plus haut degré 극도로	반투명
46.	도움, 호의 (une aide)	faire une fleur à qn...에게 호의[혜택]를 베풀다	불투명
		Donner coup de main 도움을 주다	반투명
		On a souvent besoin d'un plus petit que soi [속담] 사람은 때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반투명
		Un peu d'aide fait grand bien. [속담] 작은 도움도 큰 역할을 한다	반투명
		Il vaut mieux donner que recevoir [속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투명
		De bon coeur 기꺼이, 진심으로	반투명
47.	은폐, 거짓 (un mensonge)	sous la table 몰래	반투명
		Mon oeil! (구어) 설마!	불투명
		Cacher son jeu 의도를 숨기다, 속셈을 감추다	반투명
48.	재미, 흥미 (un intérêt)	Avoir du gout pour -을 좋아하다, 흥미가 있다	투명
		faire le sel de qc ...에 감칠 맛[짜릿한 재미]을 주다, 흥미 있게 하다	반투명
		Avoir(prendre) qch à coeur -에 열렬한 관심을 갖다	반투명
		c'est l'eau et le feu 상극이다	투명
49.	원수지간 (ennemi)	vivre comme chien et chat 원수지간이다	투명
		manger un morceau[구어] 가벼운 식사를 하다	반투명
50.	식사, 식욕 (un repas)	avoir l'eau à la bouche 군침이 돌다	투명
		À table! 식사합시다!	반투명
		Avoir une faim de loup 배가 매우 고프다	불투명
		Danser devant le buffet 배가 고프다, 굶주리	불투명

		다	반투명
		dîner par cœur [구어] 먹은 셈치다, 끼니를 거르다	

## 5. 결론

관용어는 모어 화자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며 그들의 사상과 사고방식, 문화에 대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라면 반드시 학습해야 할 학습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관용어의 속성이 간단하게 특정 지어질 수 없고, 그 범주를 아주 명확하게 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학습요소로 다뤄지더라도 아주 적은 비중으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는 수준에만 그쳐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용어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관용어가 갖는 교육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프랑스어 교육에서 초급학습자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용어 목록의 제시를 시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 기본어휘를 포함한 관용어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관용어를 A2 학습 수준에 적합한 관용어로 분류하기 위해 ‘의미의 투명성 정도’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통사적, 형태적 기준을 토대로 관용어를 분류하기에는 관용어의 구조가 항상 규칙적인 것은 아니므로, 의미론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구분을 시도하고자 했다. 하지만 본론에서도 언급했듯이 ‘투명성의 정도’라는 기준을 통해서 관용어를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 수준에 따른 관용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학습 수준에 따른 관용어를 구분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관용어를 의미의 투명성의 정도로만 구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분류한 관용어를 다시 ‘교수-학습 방안’과 ‘명칭론’이라는 두 기준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A2수준을 위한 관용어 목록을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방안’이라는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쉬운 난이도의 관용어를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난이도가 약간 있더라도 교사의 추가적 설명이 제공된다면 문화적 측면을 알아볼 수 있는 관용어를 선정하였다. 또한 ‘명칭론’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하여 하나의 개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용어를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관용어 목록을 제시하였지만, 이 목록을 실제 수업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려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관용어를 의미의 투명성을 토대로 분류하고, A2수준을 위한 관용어 목록의 수립의 시도를 한 것은 앞으로 관용어 교육을 위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15).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 곽노경 (2015). 프랑스어 관용어 표현 속에 담긴 언어·문화 연구 및 수업에서의 활용 방안. 프랑스어문교육, 51, 157-179.
- 김부경, 채영희, Kim, Boo - Kyoung, & Chae, Young - Hee. (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교육 목록 구성. 동북아 문화연구, 34, 261-277.
-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제15호
- 박동열. (2016). 외국어로서 프랑스어의 성구소 교수법을 위한 연구
- 서은향(2015). 중학교 관용 표현의 지도 방안: 의미의 투명성 정도를 중심으로
- 이주희. (2009). (The)effects of Collocation-based Vocabulary Instruction on EFL Learners' Receptive and Productive Skills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193-203, 탑출판사
- 조병준, 심봉섭, 최희재. (2014). 『Le françaisI』, 인천광역시교육청
- 조병준, 심봉섭, 최희재. (2014). 『Le françaisII』, 인천광역시교육청
- Bally, C. (1951). Traité de stylistique Francaise. tome 1-2 / Charles Bally. Genève: Libraire Georg.
- Benson, M., Ilson, E., Benson, Evelyn, & Ilson, Robert F. (2010). The BBI

Combinatory Dictionary of English [electronic Resource] : Your Guide to Collocations and Grammar.

Berthet, A. et al. (2006). *Alter égo 1* .Paris: ,hachette.

Berthet, A. et al. (2006). *Alter égo 2* .Paris: ,hachette.

Berthet, A. et al. (2007). *Alter égo 3* .Paris: ,hachette.

Berthet, A. et al. (2007). *Alter égo 4* .Paris: ,hachette.

Bischof, B., & Klausurtagung, K. (2004). The collocation in French.

Caillies, S. (2009). Caillies, S. (2009). Descriptions de 300 expressions idiomatiques: familiarité, connaissance de leur signification, plausibilité littérale,«décomposabilité» et «prédicibilité». L'année psychologique, 109(03), 463-508.

Cassagne, J. (1995). 101 French idioms : Understanding French language and culture through popular phrases . USA: Passport Books.

Cavalla, C. (2008). Propositions didactiques pour l'enseignement d'éléments phraséologiques en FLE. Enseigner les structures langagières en FLE, <http://tmaes>.

Cavalla, C. (2009). La phraséologie en classe de FLE. Les langues modernes, 1, 2009.

Chollet, I., & Robert, J. (2008). Les expressions idiomatiques . CLE International.

Cieślicka, Anna. (2006). Literal Salience in On-Line Processing of Idiomatic Expressions by Second Language Learners. Second Language Research, 22(2), 115-144.

- Council of Europe. Division des politiques linguistiques. (2005). Un 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 Apprendre, enseigner, évaluer. Paris : Strasbourg: Didier ; Conseil de l'Europe, Division des politiques linguistiques.
- Cristelle Cavalla. La phraséologie en classe de FLE. Les langues modernes, 2009
- Cruse, D. (1986). Lexical semantics / D.A. Cruse.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me, H. (2014). Enseignement des expressions idiomatiques en FLE: analyse contrastive et pistes d'exploitation en contexte estonien (Doctoral dissertation, Tartu Ülikool).
- Etienne, E. (2014). Application de normes à 320 expressions idiomatiques et proverbes Français: Les relations entre les variables psycholinguistiques sont-elles similaires (Doctoral dissertation).
- Frank Boers , Murielle Demecheleer & June Eyckmans (2004) Cross-cultural Variation as a Variable in Comprehending and Remembering Figurative Idioms, *European Journal of English Studies*, 8:3, 375-388
- Gonzalez Rey, I. (2002). La phraséologie du français. Presses universitaires du Mirail.
- Gonzalez Rey, I. (2007). Les expressions figées en didactique des langues étrangères. Bélxica: EME.
- González Rey, I. (2010). La phraséodidactique en action: les expressions figées comme objet d'enseignement. Actes de La clé des Langues,

Lyon, 2107-7029.

González Rey, I. (2015). *La phraséologie du français*. Toulouse, Presses universitaires du Midi.

Gross, G. (1996). *Les expressions figées en français : Noms composés et autres locutions*. Paris: Ophrys.

Lamiroy, B. (2008). Le figement: à la recherche d'une définition. *Zeitschrift für Französische Sprache und Literatur*, 36, 85-99.

Lennon, P. (1998). Approaches to the teaching of idiomatic language. *IRAL-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36(1), 11-30.

Lewis, & Lewis, Michael. (2000). *Teaching collocation: Further developments in the Lexical Approach* / editor: Michael Lewis ; with chapters by Jane Conzett... [et al.]. Hove: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Lewis, M. (1994). *The Lexical Approach. The State of ELT And A Way Forwar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Martyńska, M. (2004). Do English language learners know collocations. *Investigationes linguisticae*, 11, 1-12.

Mel'čuk, Igor. "Phraseology in the language, in the dictionary, and in the computer." *Yearbook of Phraseology* 3.1 (2012): 31-56.

Meunier, Granger, Meunier, Fanny, & Granger, Sylviane. (2008). *Phraseology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 edited by Fanny Meunier, Sylviane Granger.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Nunberg, G., Sag, I. A., & Wasow, T. (1994). Idioms. *Language*, 491-538.

Pecman, M. (2004). L'enjeu de la classification en phraséologie. *EUROPHRAS 2004*, 26-29.

Yağiz, O., & Izadpanah, S. (2013). Language, Culture, Idiom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 Language.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4(5), 953-957.

#### 〈참고사이트〉

<http://www.expressio.fr>

<http://www.francaisfacile.com/>

<http://focus.tv5monde.com/expressions-imagees/les-expressions-francaises/>

<http://www.expressions-francaises>.

## 부록

(※ 알파벳 K와 Y로 시작하는 어휘는 기본어휘표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관용어 목록에서도 제외하였다.)

[표 26] 프랑스어 교육과정 기본어휘를 포함하는 관용어

A			투명성의 정도		
	표현	뜻	투명	반투명	불투명
1.	à l' <b>abord</b>	처음에, 첫눈에		○	
2.	au premier <b>abord</b>	첫 눈에, 처음부터		○	
3.	d' <b>abord</b>	1. 우선, 앞서, 먼저 2. 원래, 본질적으로 3. (문어)즉시, 당장에		○	
4.	<b>accident</b> de parcours	[비유] (계획의 실행 중 에 일어난) 사고, 우발 적인 일		○	
5.	en cas d' <b>accident</b>	사고가 날 때에는		○	
6.	D' <b>accord</b> !	동감이오, 좋습니다		○	
7.	tomber d' <b>accord</b>	합의에 이르다		○	
8.	<b>acheter</b> une conduite	[구어]행실을 고치다			○
9.	se tromper d' <b>adresse</b>	번지수가 틀리다, 엉뚱 한 사람에게 문의하다		○	
10.	avec <b>adresse</b>	숨씨 좋게, 교묘하게		○	
11.	à l' <b>adresse</b> de qn	...에게 보내는,...을 향 한		○	
12.	être de son <b>âge</b>	나이에 어울리다		○	
13.	On apprend à tout <b>âge</b> .	[속담] 배움에는 노소 가 없다	○		
14.	<b>aller</b> au-devant	1....을 마중 나가다 2. 과감하게 맞서다 3. 선수를 치다, 기선을 제압하다, 미리 대책을 강구하다		○	
15.	<b>aller</b> sur+연령	(어느 연령에) 가까워 지다		○	

16.	<b>aller</b> crescendo	고조되다, 증가하다, 심해지다		○	
17.	<b>Aller</b> au charbon	일하러 가다 [구어] 곤란한 일을 떠맡다			○
18.	<b>Aller</b> son petit bonhomme de chemin	자기 일을 착실하게 하다			○
19.	Cent sept <b>ans</b>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무한정			○
20.	faire l' <b>août</b>	추수하다			○
21.	Qui est à l' <b>appareil</b> ?	(전화에서) 누구시죠?		○	
22.	Tel <b>arbre</b> tel fruit.	[속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	
23.	Jeter l' <b>argent</b> par les fenêtres	돈을 낭비하다		○	
24.	<b>arriver</b> comme un chien dans un jeu de quille	이유 없이 일어나다			○
25.	C'est l'enfance de l' <b>art</b>	아주 쉬운 것이다			○
26.	Renvoyer l' <b>ascenseur</b>	받은 만큼 돌려주다			○
27.	ne rien perdre pour <b>attendre</b>	기다린다고 손해 볼 것은 없다	○	○	
28.	<b>Avoir</b> la berlue	허튼[당치않은] 소리를 하다		○	
29.	<b>Avoir</b> une ardoise	빚이 있다			○
30.	<b>Avoir</b> la frite	컨디션이 좋다		○	
31.	<b>avoir</b> du vague à l'âme	수심에 잠겨 있다, 침울하다			○
32.	<b>Avoir</b> les crocs	(구어)배가 고프다			○
33.	<b>avoir</b> le fou rire	웃음을 그치지 못하다		○	
<b>B</b>					
34.	<b>boire</b> un coup	한 잔 마시다		○	
35.	<b>boire</b> comme une éponge	술을 진탕 마시다		○	
36.	Être(se mettre) dans le <b>bain</b>	(일·사정에) 정통하다, 잘 알고 있다			○
37.	une peau de <b>banane</b>	물먹이기, 골탕먹이기			○
38.	Il fait <b>beau</b>	날씨가 좋다		○	
39.	Tout <b>beau</b> !	조용히, 침착하시오		○	
40.	un <b>beau</b> jour	(과거·미래의) 어느날		○	
41.	avoir <b>beaucoup</b> d'appétit	식욕이 왕성하다	○		

42.	un peu <b>beaucoup</b>	[구어] 무척, 꽤 (비꼼의 의미도 있음)		○	
43.	Plusieurs peu font un <b>beaucoup</b>	[속담] 티끌 모아 태산		○	
44.	<b>Beaucoup</b> de bruit pour rien	별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법석을 떨다		○	
45.	être <b>beaucoup</b> pour qn	...에게 중요하다			○
46.	Un <b>bas</b> de laine	(프랑스 농촌에서 저축한 돈을 숨겨두는) 비밀 장소, [비유] 저축한 돈			○
47.	Mettre quelqu'un plus <b>bas</b> que terre	무안을 주다			○
48.	Voler <b>bas</b>	(작품·화제 따위가) 저속한 방향으로 흐르다		○	
49.	parler chapeau <b>bas</b>	예의바르게 말하다[인사하다]		○	
50.	Être dans le même <b>bateau</b>	같은 상황에 있다. 한 배를 타다.		○	
51.	Mener quelqu'un en <b>bateau</b>	배신하다			○
52.	au <b>besoin</b>	필요한 경우		○	
53.	avoir <b>besoin</b> de qn/qc/inf	...이[하는 것이] 필요하다	○		
54.	Il est <b>besoin</b> de+ inf	...하는 것이 필요하다		○	
55.	On a souvent <b>besoin</b> d'un plus petit que soi.	[속담] 사람은 때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	
56.	Faire son <b>beurre</b>	[구어] 제 뱃속을 채우다, 돈을 벌다			○
57.	Etre beurré comme un petit- <b>beurre</b>	완전히 취하다			○
58.	Un oeil au <b>beurre</b> noir	(얻어맞아) 눈언저리에 멍이 들다			○
59.	<i>rat</i> de la <b>bibliothèque</b>	[구어] 책벌레		○	
60.	tomber <b>bien</b>	일이 좋게 되다		○	
61.	Un peu d'aide fait grand <b>bien</b>	[속담] 작은 도움도 큰 역할을 한다		○	
62.	bel et <b>bien</b>	정말로, 완전히			○
63.	Nul <b>bien</b> sans peine	[속담] 고생없이 낙[부		○	



		귀] 없다			
64.	bien entendu	물론,당연히		○	
65.	À bientôt!	(곧) 또 봅시다!		○	
66.	gagner son bifteck	밥벌이를 하다		○	
67.	tirer un billet blanc	(복권·추첨에서) 허탕치다			○
68.	faire chou blanc	실패하다			○
69.	manger son pain blanc	즐거운[쉬운] 일부터 시작하다,(일시적인)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
70.	N'y voir que du bleu	무슨 영문인지 모르다			○
71.	La grande bleue	바다(특히 지중해)		○	
72.	battre qn bleu	...을 눌린 때리다		○	
73.	cordon bleu	숨씨 좋은 요리사			○
74.	passer au bleu	(돈 따위가 속임수로) 감쪽같이 없어지다			○
75.	élevé dans une boîte	[구어] 풍파 없이 고이 자란		○	
76.	mettre qn en boîte	[구어] ...을 놀리다		○	
77.	Simple comme bonjour	매우 쉽다	○		
78.	bonjour bonsoir	오가다 인사하는 정도의 사이			○
79.	rester les bras croisés	1.팔짱을 끼고 있다 2.무위도식하다, 수수방관하다		○	
80.	Avoir le bras long	인맥이 넓다			○
81.	faire du bruit	시끄럽게 하다,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다	○		
82.	Le bruit pend l'homme	[속담] 사람은 한 번 나쁜 소문이 돌면 마지막이다			○
C					
83.	Ça va	1.좋아, 됐어, 오케이(O.K.) 2.작작해 뒤,그만하지 못하겠니		○	
84.	cacher sa vie	은둔 생활을 하다	○		
85.	faire cadeau de qc à qn	...에게 ...을 선물하다	○		

86.	prendre son <b>café</b>	(평상시와 같이) 커피를 마시다,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		○	
87.	à la <b>carte</b>	선택식의		○	
88.	<b>carte forcée</b>	(마술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카드, [비유] 강요된 일			○
89.	Donner(laisser) <b>carte</b> blanche à qqn	에게 백지위임하다, 모든 것을 맡기다		○	
90.	On ne fait pas d'omelettes sans <b>casser</b> des œufs.	[속담] 희생없이 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	
91.	<b>se casser</b> la tête	애쓰다, 노력하다		○	
92.	à tout <b>casser</b>	1.매우 대단히, 최고로 2.굉장한 3.기껏해야			○
93.	<b>se casser</b> la voix	목이 쉬다	○		
94.	<b>se casser</b> le nez	...을 찾아갔다 못 만나다, [구어] 좌절[실패]하다			○
95.	Il n'y a pas d'effet sans <b>cause</b>	[속담]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라		○	
96.	<b>Ceci tuera cela</b>	[비유] 새로운 것이 옛것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	
97.	une question à <b>cent</b> francs	[비유] 풀기 어려운 문제			○
98.	être sûr et <b>certain</b>	[구어] 틀림없다, 절대 확신하다		○	
99.	<b>Chacun</b> ses goûts	[속담] 사람은 자기 식대로 행동한다, 10인 10색		○	
100.	<b>Chacun</b> pour soi et Dieu pour tous	[속담] 사람은 저마다 자신을 위하고, 신은 모두를 위한다		○	
101.	<b>Chacun</b> prend son plaisir où il le trouve	사람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다		○	
102.	Mener une vie de bâton de <b>chaise</b>	[구어]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			○

103.	faire sa <b>chambre</b>	방을 청소하다	○		
104.	garder sa <b>chambre</b>	(병으로) 집에 있다		○	
105.	La <b>chance</b> a tourné	인생만사 새옹지마		○	
106.	tenter sa <b>chance</b>	운을 시험해보다		○	
107.	faire un pacte avec la <b>chance</b>	항상 운이 따르다		○	
108.	<b>changer</b> de visage	1.안색[표정]이 변하다 2.변신하다		○	
109.	<b>changer</b> de ton	어조를 바꾸다,[비유] 태도를 바꾸다		○	
110.	<b>changer</b> d'opinion tous les quinze jours	[구어] 의견을 자주 바꾸다		○	
111.	porter le <b>chapeau</b>	잘못에 책임을 지다			○
112.	faire passer le <b>chapeau</b>	(기부금을 걷기 위해) 모자를 돌리다			○
113.	À <b>chaque</b> jour suffit sa peine	[속담] 내일의 일은 내일 걱정하라		○	
114.	<b>Chaque</b> chose en son temps	[속담] 무슨 일이나 때가 있다		○	
115.	Avoir un <b>chat</b> dans la gorge	목이 잠겨 있다[쉬어 있다]		○	
116.	Il faut battre le fer quand il est <b>chaud</b> .	[속담]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한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잡아야 한다		○	
117.	avoir <b>chaud</b>	1.덥다 2.[비유] 겁이 나다	○		
118.	souffler le <b>chaud</b> et le froid	견해를 바꾸다,어르고 협박하기를 반복하다		○	
119.	trouver <b>chaussure</b> à son pied	찾던[알맞은] 것을 구하다,제 짝[호적수]을 만나다		○	
120.	changer de qc comme de <b>chemise</b>	...을 끊임없이 바꾸다 [갈아치우다]		○	
121.	Le bon marché coûte toujours <b>cher</b>	[속담] 싼게 비지떡		○	
122.	<b>Chercher</b> des noises à qn	...에게 싸움을 걸다		○	
123.	aller <b>chercher</b> de la laine et revenir tondu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오다		○	

124.	Il y a un <b>cheveu</b>	1. 귀찮은 일이 생겼어 2. 옥에 티		○	
125.	faire comme <b>chez soi</b>	(몸가짐·마음을) 편안하게 하다		○	
126.	vivre comme <b>chien</b> et chat	견원지간(犬猿之間)이다	○		
127.	être <b>chocolat</b>	[구어] 속다, 낙심하다			○
128.	<b>Chose</b> dite, <b>chose</b> faite	[속담] 약속한 것은 이행해야 한다			○
129.	faire (tout) un <b>cinéma</b>	조르다			○
130.	avoir de la <b>classe</b>	1.품위가 있다 2.(예술가 따위가) 재능이 있다 3.(작품 따위가) 우수하다, 훌륭하다		○	
131.	faire <b>classe</b>	(선생이) 수업을 하다, 가르치다	○		
132.	Le <b>client</b> a toujours raison.	[속담] 손님은 왕이다			○
133.	<b>commander</b> les gens à la baguette	사람들을 엄하게 다루다			○
134.	<b>commencer</b> la danse	[비유] 맨 먼저 행동을 개시하다			○
135.	Il faut <b>comparer</b> ce qui est comparable.	[속담] 비교 가능한 것을 비교해야 한다	○		
136.	<b>comprendre</b> à demi-mot	입만 뽕끗해도 알아차리다		○	
137.	<b>Compter</b> pour du beurre	별로 중요하지 않다			○
138.	<b>compter</b> les coups	(복싱 따위에서) 판정하다, [비유] (승부를) 관망하다			○
139.	donner de la <b>confiture</b> aux cochons	[속담] 돼지에 진주			○
140.	<b>connaître</b> la musique	[구어] 사정에 밝다, 수완이 좋다		○	
141.	être à la <b>conversation</b>	대화에 참여하다, 대화에 귀를 기울이다		○	
142.	<b>se coucher</b> avec (comme) les poules	아주 일찍 자다			○
143.	<b>Se coucher</b> à la belle	노숙하다		○	

	étoile				
144.	annoncer la <b>couleur</b>	[비유] 의중을 드러내다, 의도를 밝히다		○	
145.	<b>Couper</b> les vivres	...에게 식량보급의 길을 끊다,...에게 물질적 원조를 중단하다		○	
146.	<b>couper</b> la poire en deux	공평하게 양보하다[타협하다]		○	
147.	<b>Couper</b> les cheveux en quatre	[구어] 지나치게 세밀히 따지다			○
148.	Bon <b>courage</b>	용기를 내라!		○	
149.	<b>courir</b> les rues	흔하다, 평범하다		○	
150.	<b>coûter</b> bonbon	[구어] 비싸다			○
151.	<b>coûter</b> les yeux de la tête	(눈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다			○
152.	avoir un bon coup de <b>crayon</b>	그림 그리는 솜씨가 좋다			○
<b>D</b>					
153.	<b>Danser</b> devant le buffet	굴주리다			○
154.	Ne pas savoir sur quel pied <b>danser</b>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다	○		
155.	Cela ne <b>date</b> pas d'hier	그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
156.	à <b>date</b> fixe	정해진 날짜에	○		
157.	mettre qc <b>debout</b>	1....을 세우다 2.(어떤 일을)계획하다, 궤도에 올리다,성공시키다		○	
158.	ne pas tenir <b>debout</b>	1.(사물이) 불안정하다 2.(사람이) 서 있지 못하다,병을 앓고 있다 3.(주장·이론 따위) 타당하지 않다,성립하지 않다		○	
159.	dormir <b>debout</b>	[비유] 졸리다		○	
160.	<b>découvrir</b> l'Amérique	[비유] 이미 알려진 것을 발견하다			○
161.	au plus haut <b>degré</b>	극도로		○	

162.	par <b>degré</b>	서서히,조금씩		○	
163.	J'ai <b>déjà</b> donné!	[구어] 이미 했다[겪었다],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다			○
164.	Il ne faut pas remettre à <b>demain</b> ce qu'on peut faire le jour même	[속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		
165.	<b>demander</b> la lune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다			○
166.	À trompeur, trompeur et <b>demi</b>	[속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	
167.	faire <b>demi</b> -tour	1.되돌아 가다,(차가) U턴하다 2.[구어] 의견을 180도 바꾸다		○	
168.	prendre le <b>départ</b>	1.출발하다 2.[비유]시작하다,개시하다		○	
169.	avoir le <b>dernier</b> mot	결정권을 가지다, 논쟁에 이기다		○	
170.	montrer le <b>derrière</b>	도망가다		○	
171.	être toujours <b>derrière</b> qn	[비유·구어] ...가 하는 일을 항상 뒤에서 확인하다[감시하다]		○	
172.	<b>descendre</b> au tombeau	죽다		○	
173.	faire un <b>dessin</b> à	...에게 충분히 설명하다			○
174.	<b>Deux</b> avis valent mieux qu'un	[속담] 여럿이 의견을 합치면 좋은 꾀가 생긴다		○	
175.	<b>devenir</b> rare	(사람이) 얼굴을 잘 보이지 않다		○	
176.	<b>devoir</b> une belle chandelle à qn	...에게서 대단한 은혜를 입고 있다			○
177.	La critique est aisée, et l'art est <b>difficile</b> .	[속담] 비평은 쉬우나 예술은 어렵다,말은 쉬우나 행동은 어렵다		○	
178.	être <b>difficile</b> à chausser	성미가 까다롭다			○
179.	Ce n'est pas tous les jours <b>dimanche</b>	[구어]인생에는 즐거운		○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180.	dîner par cœur	[구어] 먹은 셈치다, 끼니를 거르다		○	
181.	dire adieu au monde	세상을 하직하다		○	
182.	La vérité n'est pas toujours bonne à dire	[속담] 사실이라 해서 다 말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	
183.	Mais comment donc!	물론이지!		○	
184.	Donner le change	(속마음을 감추고) ...을 속이다,(다른 물건을 진짜처럼 믿게 해서) ...을 속이다			○
185.	La façon de donner vaud mieux que ce qu'on donne	[속담]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떻게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		
186.	donner naissance à qn/qc	1....을 낳다 2....을 일으키다, 생기게 하다		○	
187.	Il vaut mieux donner que recevoir	[속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		
188.	Dormir en chien de fusil	몸을 구부리고 자다			○
189.	dormir comme un ange (un bienheureux)	평화롭게 잠을 자다		○	
190.	dormir comme un loir (une moarmotte, une souche)	깊게 잠이 들다			○
191.	dormir sur ses deux oreilles	안심하고 자다		○	
192.	dormir dans les cartons	[비유] (서류·계획 따위가) 처리가 안 되다, 묵살되다			○
193.	avoir besoin d'une douche	[구어]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
194.	filer doux	얌전히 따르다			○
195.	porter le drapeau	기수가 되다,(운동 따위의) 선두에 서다		○	
196.	mettre son drapeau dans sa poche	자기 주장을 감추다		○	
197.	un dur à cuire	다루기 힘든 사람			○
E					
198.	c'est l'eau et le feu	상극이다	○		

199.	De la même <b>eau</b>	같은 종류의		○	
200.	avoir l' <b>eau</b> à la bouche	군침이 돌다	○		
201.	L' <b>eau</b> qui tombe goutte à goutte cave la pierre.	[속담] 낙숫물이 댕돌을 뚫는다		○	
202.	Il n'est pire <b>eau</b> que l'eau qui dort	[속담]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
203.	Être à bonne <b>école</b>	좋은 가르침을 받고 있다		○	
204.	Faire l' <b>école</b> buissonnière	학교에 가지 않고 놀러 다니다, 학교를 빼먹다			○
205.	<b>écouter</b> à la porte	엿듣다		○	
206.	<b>écrire</b> comme un chat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갈겨 쓰다			○
207.	courir <b>encore</b>	[비유] 도주하고 있다, 잡히지 않다		○	
208.	attendre un <b>enfant</b>	임신중이다		○	
209.	<b>enlever</b> le pain de la bouche à qn	...의 음식[생계수단]을 뺏다		○	
210.	aller <b>ensemble</b>	잘 어울리다, 조화를 이루다		○	
211.	<b>entrer</b> dans la ronde	원무 속에 끼어들다, [비유] 무리에 끼어들다		○	
212.	<b>Entrer</b> en lice	1. 경기[투기]를 시작하다 2. 토론에서 발언하다		○	
213.	avoir <b>envie</b> de qc/ inf	...을 가지고[하고] 싶다	○		
214.	Il vaut mieux faire <b>envie</b> que pitié.	[속담] 동정받는 사람보다 남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라		○	
215.	auberge <b>espagnole</b>	1. 규율이 이완된 상황 2. 신통치 않은 곳			○
216.	<b>expliquer</b> le pourquoi du comment	매우 복잡하게 설명하다		○	
<b>F</b>					
217.	Se voiler la <b>face</b>	(부끄러움·불쾌감·두려움 따위로 인하여) 얼굴을 가리다		○	



218.	faire <b>face</b> à qc/ qn	[비유] ...에 대항하다,...에 대처하다		○	
219.	jeter qc à la <b>face</b> de qn	[비유] ...을 ...에게 대놓고[솔직하게] 말하다		○	
220.	être <b>facile</b> à vivre	붙임성이 있다, 교제하기 쉽다		○	
221.	donner <b>faim</b>	배고프게 하다		○	
222.	La <b>faim</b> chasse le loup du bois	[속담] 필요에 몰리면 못하는 짓이 없다, 목구멍이 포도청			○
223.	<b>faire</b> un somme	낮잠을 자다	○		
224.	<b>faire</b> le tour du cadran	12시간 동안 줄곧 자다 [같은 일을 하다], 출발점에 되돌아오다			○
225.	<b>faire</b> la grasse matinée	늦잠을 자다			○
226.	<b>Faire</b> son chemin	성공하다			○
227.	ouvrir une <b>fenêtre</b> sur qc	1....에 면한 창문을 열다 2.[비유] ...을 보여주다,...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다		○	
228.	<b>fermer</b> les yeux sur qc	[비유] ...을 눈감아주다, 못 본 체하다		○	
229.	Il n'y a pas de fumée sans <b>feu</b>	[속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	
230.	Il n'y a pas le <b>feu</b>	서두를 것 없다		○	
231.	souffler sur le <b>feu</b>	1.입김을 불어 불을 일으키다 2.선동하다,흥분시키다		○	
232.	donner le <b>feu</b> vert à qn	...에게 행동개시를 허락하다		○	
233.	Jouer la <b>fille</b> de l'air	일언반구도 없이 가버리다[달아나다]			○
234.	faire une <b>fleur</b> à qn	...에게 호의[혜택]를 베풀다			○
235.	Etre <b>fleur</b> bleue	감성적이다			○
236.	prendre <b>forme</b>	[비유] 뚜렷해지다,구체화되다		○	

237.	ramener sa <b>fraise</b>	[구어]오다,도착하다, [비유] 뽐내다,거드름을 피우다			○
238.	mettre qc au <b>frigo</b>	1....을 냉동실에 넣다 2....을 동결하다[보류하 다]		○	
239.	avoir <b>froid</b>	추워하다, 추위를 타다	○		
240.	En faire un <b>fromage</b>	...을 (터무니없이) 대 단하게 여기다			○
241.	être comme un rat dans un <b>fromage</b>	유복하게[안락하게] 살 다		○	
242.	C'est au <b>fruit</b> qu'on connaît l'arbre. Tel arbre tel <b>fruit</b> .	[속담] 열매를 보면 나 무를 알 수 있다		○	
<b>G</b>					
243.	<b>gagner</b> du terrain	1.전진하다 2.[비유] 번지다,확산되 다			○
244.	<b>gagner</b> ses galons	계급이 올라가다,[비유] 승진하다		○	
245.	Un <b>garçon</b> manqué	사내답지 않은 남자아 이			○
246.	<b>garder</b> qc pour la bonne bouche	[비유] 제일 좋은 것을 맨 나중에 남겨두다		○	
247.	fondre la <b>glace</b>	(대화 따위의) 서먹서 먹한 분위기를 없애다		○	
248.	La cerise sur le <b>gâteau</b>	금상첨화		○	
249.	avoir du <b>goût</b>	맛이 좋다, 센스가 있 다	○		
250.	Avoir un <b>goût</b> de revenez-y	다시 먹고 싶어지는 맛 있는 요리		○	
251.	faire le <b>grand</b> voyage	죽다			○
252.	la nuit, tous les chats sont <b>gris</b> .	[속담] 어둠은 모든 것 을 가린다			○
253.	avoir le cœur <b>gros</b> (lourd)	서글프다		○	
<b>H</b>					
254.	dire bien <b>haut</b>	분명히[숨김없이] 말하 다			○
255.	De bonne <b>heure</b>	(아침) 일찍			○

256.	attendre son <b>heure</b>	기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다		○	
257.	À la bonne <b>heure</b> !	좋아!, 잘됐군!			○
258.	Ne pas être né d' <b>hier</b>	잘 알다			○
259.	Une <b>histoire</b> à dormir debout	믿을 수 없는 이야기			○
260.	Tant vaut l' <b>homme</b> , tant vaut la terre	[속담] 수확의 다과는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			○
261.	Le bon vin réjouit le cœur de l' <b>homme</b>	[속담] 좋은 술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		
262.	C'est l' <b>hôpital</b> qui se moque de la charité	웃이 검정 나무란다			○
<b>I</b>					
263.	Avoir des <b>idées</b> noires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	
264.	Être sage comme une <b>image</b>	아주 암전하다	○		
<b>J</b>					
265.	Faire des ronds de <b>jambe</b>	굽신거리다			○
266.	Tenir la <b>jambe</b> à qqn	말을 걸며 붙잡다			○
267.	faire une belle <b>jambe</b>	아무런 소용도 없다, 헛다리 짚게 하다			○
268.	Il faut faire le pas selon la <b>jambe</b> .	[속담] 분수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	
269.	Il faut cultiver notre <b>jardin</b> .	[속담] (사변적이 아닌)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
270.	rire <b>jaune</b>	쓴웃음을 짓다			○
271.	<b>jeter</b> bas	허물다, 무너뜨리다, 넘어뜨리다		○	
272.	<b>jeter</b> l'ancre	닻을 내리다, [비유] 어떤 장소에 정착하다		○	
273.	Cacher son <b>jeu</b>	의도를 숨기다, 속셈을 감추다		○	
274.	Jouer le <b>jeu</b>	원칙에 따라 행동하다		○	
275.	vivre au <b>jour</b> le <b>jour</b>	그날 벌어 그날 살다		○	
276.	voir le <b>jour</b>	태어나다, (사물이) 출현하다, (책 따위가) 출판되다			○
<b>K</b>					

<b>L</b>					
277.	<b>laisser</b> aller qn/ qc	1. 가도록 놓아두다 2. 되는데로 놓아두다	○		
278.	<b>laisser</b> froid	...에게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하다			○
279.	Bien faire et <b>laisser</b> dire.	[속담] 남이 무어라고 하건 옳다고 믿으면 해 야한다			○
280.	Il faut <b>laisser</b> les morts en paix.	[속담] 죽은 자에 대해 말을 하면 안 된다			○
281.	Boire du (petit) <b>lait</b>	자부심을 느끼며 뿌듯 해 하다		○	
282.	une soupe au <b>lait</b>	쉽게 성내는 사람			○
283.	Avoir la <b>langue</b> bien pendue	말이 험하다			○
284.	avoir la <b>langue</b> agile	입담이 좋다		○	
285.	Etre mauvais <b>langue</b>	말이 서툴다		○	
286.	avoir un boeuf sur la <b>langue</b>	끈질기게 침묵을 지키 다		○	
287.	Il faut tourner sept fois sa <b>langue</b> dans sa bouche avant de parler	[속담] 말하기 전에 심 사숙고해야 한다	○		
288.	donner sa <b>langue</b> au chat	단념하다, 포기하다			○
289.	avoir(bien) appris la <b>leçon</b>	질문에 대답을 잘하다			○
290.	avoir le sommeil <b>léger</b>	잠귀가 밝다		○	
291.	passer comme une <b>lettre</b> à la poste	매우 쉽다		○	
292.	<b>lever</b> l'ancre	돛을 올린다, [비유·속 어] 가버리다, 달아나다		○	
293.	<b>lever</b> son masque	가면을 벗다, 본성을 드러내다		○	
294.	<b>lever</b> le pied	1.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다,속력을 늦추다 2.중단하다,멈추다 3.돈을 가지고 달아나 다,횡령하다		○	
295.	<b>lire</b> des doigts	대강 훑어보다			○
296.	aller trop <b>loin</b>	과장하다, 도를 넘다, 지나치다		○	

297.	revenir de <b>loin</b>	겨우 살아나다			○
298.	voir <b>loin</b>	멀리까지 보다, 통찰력이 있다, 선견지명이 있다		○	
299.	ne pas faire <b>long</b> feu	오래가지 못하다			○
300.	de <b>long</b> en large	이리저리; 어떤 의미로든; [비유·구어] 어쨌든			○
301.	dans <b>longtemps</b>	[구어] 오랫동안	○		
302.	d'ici <b>longtemps</b>	앞으로 당분간은		○	
303.	poids <b>lourd</b>	1.(버스 따위의) 대형 차량 2.[비유] 키크고 뚱뚱한 사람,(어떤 분야에서의) 중요 인사[단체]			○
304.	ne pas peser <b>lourd</b>	중요하지 않다, 영향력이 별로 없다			○
305.	être dans la <b>lune</b>	현실감각이 없다, 멍한 상태에 있다			○
306.	Décrocher la <b>lune</b>	터무니 없는 일을 하다			○
307.	La <b>lune</b> de miel	허니문		○	
308.	Tomber de la <b>lune</b>	깜짝 놀라다, 어리둥절하다			○
<b>M</b>					
309.	faire <b>machine</b> arrière	후진하다, (갔던 길을) 되돌아 오다, (했던 말을) 취소하다, (일을) 중단하다, (요구 따위를) 철회하다		○	
310.	avoir sous la <b>main</b>	수중에 가지고 있다	○		
311.	avoir la <b>main</b> verte	화초를 잘 가꾸다			○
312.	À qui se lève matin Dieu aide et prête la <b>main</b>	[속담] 아침 일찍 일어나면 복을 받는다			○
313.	Prendre en <b>main</b> quelque chose	~을 맡다. 장악하다		○	
314.	clés en <b>main</b>	즉시 이용할 수 있는		○	
315.	avoir la <b>main</b> ouverte	관대하다, 후하다		○	
316.	coup de <b>main</b>	1.습격, 급습 2.(일시적인) 도움, 조력 3.능숙한 솜씨		○	

317.	passer la <b>main</b>	1.선을 넘겨주다 2.[비유] 포기하다,단념하다		○	
318.	avoir la <b>main</b> malheureuse	1.서투르다,손재주가 없다 2.[비유] (선택을 잘못하여) 실패하다		○	
319.	montrer en <b>main</b>	정확히			○
320.	avoir un poil dans la <b>main</b>	[비유] 매우 게으르다		○	
321.	En mettre sa <b>main</b> au feu	손에 장을 지지다			○
322.	à <b>main</b> nue	맨손으로	○		
323.	se prendre par la <b>main</b>	1.서로 손을 잡다 2.[비유·구어] 마음먹고 하다		○	
324.	Avoir le coeur sur la <b>main</b>	너그럽다			○
325.	C'est <b>maintenant</b> ou jamais	지금 이 다시없는 기회다		○	
326.	C'est gros comme une <b>maison</b>	그거 굉장하다[지나치다]			○
327.	Avoir un <b>mal</b> de chien à faire quelque chose	많은 어려움이 있다			○
328.	<b>mal</b> foutu	(사람이) 기진맥진한, 피곤한			○
329.	porter <b>mal</b> son vin	술버릇이 나쁘다, 주사(酒邪)가 있다		○	
330.	<b>manger</b> un morceau	[구어] 가벼운 식사를 하다		○	
331.	<b>manger</b> de l'argent	(사업에서) 돈을 잃다, 돈을 낭비하다		○	
332.	<b>marcher</b> droit	1.똑바로 걷다 2.올바르게 처신하다,순종적이다		○	
333.	<b>marcher</b> sur des œufs	조심스럽게 걷다,[비유] 신중하게 행동하다		○	
334.	<b>marcher</b> la tête haute	으스대며 걷다,거리낌이 없다		○	
335.	de bon <b>matin</b>	아침 일찍		○	
336.	faire le <b>méchant</b>	적의를 드러내다,[구		○	

		어] 격렬하게 항의하다			
337.	Il n'est si <b>méchant</b> pot qui ne trouve son couvercle	[속담] 현 짚신도 짝이 있다			○
338.	C'est toujours la <b>même</b> histoire	언제나 마찬가지이다		○	
339.	sur la <b>même</b> ligne	[비유] 같은 수준에, 대등하게		○	
340.	C'est le <b>même</b> prix.	[구어] 마찬가지다		○	
341.	Ce n'est pas la <b>mer</b> à boire	어렵지 않은 일이다		○	
342.	chercher par <b>mer</b> et par terre	사방을 찾아다니다		○	
343.	Nécessité est <b>mère</b> d'industrie	[속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		
344.	L'oisiveté est la <b>mère</b> de tous les vices	[속담] 나태는 모든 악덕의 원천	○		
345.	Prudence est <b>mère</b> de sûreté	[속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	
346.	Chacun son <b>métier</b> , les vaches seront bien gardées	[속담] 각자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다			○
347.	Il n'y a pas de sot <b>métier</b>	[속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	
348.	faire <b>métier</b> de	...을 직업으로 삼다,...을 상습적으로 하다	○		
349.	avoir un <b>métro</b> de retard	[구어] 최신 소식을 모르고 있다		○	
350.	Un tiens vaut <b>mieux</b> que deux tu l'auras	[속담] 지금 하나가 나중 둘보다 낫다		○	
351.	C'est toujours <b>mieux</b> que rien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
352.	à la <b>minute</b>	곧, 당장에		○	
353.	Il était <b>moins</b> cinq.	[구어·비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
354.	sur le <b>moment</b>	당장에, 즉석에서	○		
355.	un <b>monde</b> fou	엄청난 인파		○	
356.	C'est le bout du <b>monde</b>	그 이상은 생각할 수 없다, 것이 상한선이다		○	
357.	Si la <b>montagne</b> ne vient pas à nous, il faut aller à	기회는 스스로 구해야		○	

	elle	한다			
358.	<b>Monter</b> sur ses grands chevaux	[구어] 발끈하다, 기세 등등하다			○
359.	<b>mourir</b> les armes à la main	전투중에 죽다		○	
360.	aller plus vite que la <b>musique</b>	(부정적으로 자주 쓰임) 너무 빨리 가다		○	
<b>N</b>					
361.	<b>nager</b> contre le courant	1. 물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다 2. 대세에 역행하다, 시류에 거역하다		○	
362.	C'est le désir qui fait <b>naître</b> la pensée	[속담] 욕망은 사상의 아버지이다		○	
363.	faire le <b>nécessaire</b>	필요한 일을 하다, 소정의 절차를 밟다	○		
364.	Fondre comme <b>neige</b> au soleil	양지 밭에 봄눈 녹듯이 하다, 순식간에 사라지다		○	
365.	être blanc comme <b>neige</b>	결백하다		○	
366.	broyer du <b>noir</b>	비관적으로 생각하다			○
367.	il fait <b>noir</b> comme dans un four	캄캄하다		○	
368.	passer du blanc au <b>noir</b>	(의견·태도 따위가) 완전히 바뀌다			○
369.	perdre le <b>nord</b>	[구어] 방향을 잃다, 어찌 할 바를 모르다 (perdre la tête)		○	
370.	la <b>nuît</b> des temps	머나먼 옛날		○	
371.	Une <b>nuît</b> blanche	날밤		○	
<b>O</b>					
372.	Mon <b>œil</b>	[구어] 내 눈 !		○	
373.	avoir l' <b>œil</b>	빈틈이 없다, [관찰력]이 예리하다		○	
374.	Du coin de l' <b>œil</b>	결눈으로		○	
375.	ne pas fermer l' <b>œil</b>	한숨도 못자다		○	
376.	Qui vole un <b>œuf</b> , vole un bœuf	[속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	
377.	La belle plume fait le bel <b>oiseau</b>	[속담] 옷이 날개이다		○	



378.	Petit à petit l' <b>oiseau</b> fait son nid	[속담] 티끌 모아 태산		○	
<b>P</b>					
379.	Tourner la <b>page</b>	미련 없이 과거를 잊어버리다, 다른 일로 넘어가다		○	
380.	manger son <b>pain</b> dans sa poche	욕심이 많다, 인색하다, 남과 접촉하기를 싫어하다		○	
381.	Gagner son <b>pain</b>	생계를 유지하다		○	
382.	ça ne mange pas de <b>pain</b>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
383.	baisser son <b>pantalon</b>	항복하다, 자백하다		○	
384.	Avoir avalé son <b>parapluie</b>	태도가 몹시 부자연스럽다			○
385.	porter le <b>parapluie</b>	책임을 지다			○
386.	<b>parler</b> à un mur	쇠귀에 경 읽기이다		○	
387.	<b>Parler</b> du nez	콧소리를 내다		○	
388.	<b>Parler</b> de la pluie et du beau temps	진부한 이야기를 하다			○
389.	<b>parler</b> d'or	명언을 하다		○	
390.	être <b>partout</b> chez soi	편안하게 느끼다		○	
391.	<b>mettre</b> son nez <b>partout</b>	아무데나 끼여들다			○
392.	y <b>passer</b>	죽다			○
393.	L'amour fait <b>passer</b> le temps, le temps fait <b>passer</b> l'amour.	[속담] 사랑은 시간을 가게 하고, 시간은 사랑을 가게 한다		○	
394.	<b>payer</b> de sa <b>personne</b>	1.(일을) 분담하다, 자기 몫을 다하다 2.위험을 무릅쓰다, 몸소 노력하다, 헌신하다			○
395.	être en <b>pays</b> inconnu	1.생소한 나라에 있다 2.생소한 문제에 부딪치다			○
396.	<b>perdre</b> sa <b>peine</b>	헛수고하다		○	
397.	Toute <b>peine</b> mérite salaire	[속담] 모든 노력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	
398.	<b>prendre</b> la <b>peine</b> de+ inf	...하는 수고를 하다	○		
399.	<b>penser</b> tout haut	생각한 바를 분명히			○

		말하다			
400.	donner à <b>penser</b>	생각하게 하다, 생각할 여지가 있다		○	
401.	au <b>petit</b> bonheur	되는대로, 닥치는 대로			○
402.	ne pas lever le <b>petit</b> doigt	꼼짝도 안하다, 조금도 애쓰지 않다		○	
403.	<b>Petit</b> poisson deviendra grand.	[속담] 대성할 인물이 다		○	
404.	Plusieurs <b>peu</b> font un beaucoup	[속담] 티끌 모아 태산		○	
405.	avoir <b>peur</b>	두려워하다, 겁나다	○		
406.	faire <b>peur</b> à	...에게 겁을 주다,...을 무섭게 하다,불안하게 하다,맥빠지게 하다	○		
407.	<b>prendre peur</b>	겁먹다,섬뜩하다,가슴이 서늘해지다	○		
408.	<b>Prendre en photo</b>	사진을 찍다	○		
409.	à contre- <b>pied</b>	(와) 거꾸로		○	
410.	partir du bon <b>pied</b>	좋은 조건아래서 일을 시작하다			○
411.	etre sur <b>pied</b>	회복하다		○	
412.	Mettre les <b>pieds</b> dans le plat	무례한 행동을 하다, 눈치가 없다		○	
413.	sur le <b>pied</b> de	1....로서,...의 지위로 2....의 규모로,...의 비율로			○
414.	de plain- <b>pied</b>	1.동일 평면의 2.[비유] 문제없이,손쉽게,즉시,단도직입적으로			○
415.	en <b>place</b>	1.잠자코,움직이지 않고 2.제자리에 3.(사람이) 지위가 있는,유력한		○	
416.	Qui va à la chasse perd sa <b>place</b> .	[속담] 사냥을 떠나는 사람은 자리를 잃는다, 자기 자리를 떠나면 되찾지 못한다		○	
417.	sur <b>place</b>	1.움직이지 않고	○		

		2.현장에서, 그 자리에 서			
418.	Pour qui jouit seul, le <b>plaisir</b> boite.	[속담] 혼자 즐기는 자 에게는 기쁨이 반감된 다		○	
419.	à <b>plaisir</b>	1.좋을 대로,원하는 대 로,제멋대로 2.이유없이,까닭없이 3.매우		○	
420.	À <b>plein</b>	가득히, 완전히		○	
421.	en <b>plein</b> air	야외에서		○	
422.	en <b>plein</b> ciel	공중에서		○	
423.	battre son <b>plein</b>	1.(바다가) 만조 때이다 2.지금 한창이다			○
424.	le <b>plein</b> tarif	할인되지 않은 요금	○		
425.	à <b>plein</b> temps	전 시간제로,풀 타임으 로		○	
426.	<b>pleurer</b> sans oignon	[비유] 눈물을 잘 흘리 다		○	
427.	Il vaut mieux en rire qu'en <b>pleurer</b> .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것 이 더 낫다, 사물의 긍 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더 좋다	○		
428.	<b>pleuvoir</b> comme vache qui pisse	비가 억수같이 퍼붓다			○
429.	ennuyeux comme la <b>pluie</b>	몹시 지루한		○	
430.	<b>poisson</b> d'avril	만우절에 하는 거짓말 [농담]			○
431.	tomber dans les <b>pommes</b>	기절하다, 정신을 잃다			○
432.	<b>porter</b> bonheur à qn	...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다	○		
433.	pas <b>possible</b>	[구어] 예상 밖의,믿을 수 없는,정도를 벗어난, 영똥한,참을 수 없는		○	
434.	être à son <b>poste</b>	1.부서를 지키다 2.[비유] 자리를 떠나지 않다		○	
435.	à la <b>poste</b> de qn	[비유] ...의 뜻에 따		○	

		라,...의 형편에 맞는			
436.	Savoir, c'est <b>pouvoir</b> .	아는 것이 힘이다	○		
437.	être au <b>pouvoir</b> de qn	1....의 능력 범위 안에[권한내에] 있다 2....의 지배하에 있다		○	
438.	L'arbre ne tombe pas du <b>premier coup</b> .	[속담] 첫술에 배부르 랴		○	
439.	<b>prendre</b> de l'âge	나이들다, 늙다	○		
440.	<b>prendre</b> un bol d'air	맑은 공기를 마시러 야 외로 나가다		○	
441.	<b>prendre</b> son essor	1.(새·비행기 따위)날 아오르다 2.비약하다, 발전하다		○	
442.	<b>prendre</b> racine	1.(식물)뿌리를 내리 다 2.오랫동안 서서 기다 리다 3.(손님 따위) 떠나지 않다, 오래 머물다		○	
443.	<b>prendre</b> le temps de+ inf	1....할 시간을 가지다 [내다] 2.천천히[여유를 가지 고] ...을 하다	○		
444.	<b>préparer</b> le terrain	1.땅을 굳히다 2.(일의 성사를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다		○	
445.	faire un <b>prix</b> à qn	...에게 값을 깎아주다			○
446.	hors de <b>prix</b>	아주 값비싼, 터무니없 이 비싼		○	
447.	à bon <b>prix</b>	좋은 가격으로	○		
448.	à <b>prix</b> d'or	아주 비싼 값으로, 거금 을 들여서	○		
449.	n'avoir pas de <b>prix</b>	값을 따질 수가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		○	
450.	pas de <b>problème</b> .	물론		○	
451.	faire <b>profession</b> de qc/ i nf	1....을 공언[선언]하다 2....을 직업으로 하 다, ...을 일거리로 삼고	○		

		있다			
452.	C'est tout un <b>programme</b> .	그것은 결말이 뻔한 일이다		○	
453.	Il y a <b>progrès</b>	[구어] 좋아지다, 잘 되어가다		○	
454.	envoyer <b>promener</b> qc	...을 내던지다, 포기하다			○
455.	<b>Promettre</b> est un et tenir est un autre.	[속담] 약속과 실천은 별개의 것이다	○		
<b>Q</b>					
456.	comme <b>quatre</b>	매우 많이, 굉장히			○
457.	À <b>quelque chose</b> malheur est bon.	[속담] 불행도 어떤 일에는 행복이다, 전화위복		○	
458.	etre a la <b>queue</b> leu leu	줄줄이, 일렬로		○	
459.	Finir en <b>queue</b> de poisson	용두사미로 끝나다		○	
<b>R</b>					
460.	avoir <b>raison</b>	(...하는 것은) 옳다	○		
461.	faire <b>recette</b>	(공연·전시회 따위가) 성공을 거두다	○		
462.	donner à <b>réfléchir</b>	깊이 생각하게 하다		○	
463.	<b>regarder</b> à la dépense	돈을 절약하다, 인색하다		○	
464.	avoir (un) <b>rendez-vous</b>	데이트 하다		○	
465.	être au <b>rendez-vous</b>	(일이) 바라던 참에 일어나다			○
466.	<b>rendre compte</b> de qc	(...에게) ...을 보고[설명, 해명]하다		○	
467.	<b>rentrer</b> en soi	자신을 되돌아 보다		○	
468.	<b>Rentrer</b> dans sa coquille	몸을 도사리다, 침묵 속에 빠져들다			○
469.	vouloir <b>rentrer</b> sous terre	(창피스러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을 생각이다		○	
470.	À sotte demande, pas de <b>réponse</b> .	[속담] 어리석은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	

471.	<b>rester</b> sur sa soif	1.갈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다 2.[비유] 무언가 부족감이 있다,만족을 느끼지 못하다.		○	
472.	<b>réussir</b> son coup	잘 해내다, 성공하다			○
473.	Il ne faut pas <b>réveiller</b> le chat qui dort.	[속담] 잠자는 고양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	
474.	au <b>revoir</b>	또 만납시다,안녕		○	
475.	Le plus <b>riche</b> en mourant n'emporte qu'un linceul.	[속담] 아무리 부자라도 죽을 때는 수의 한 벌뿐이다		○	
476.	L'argent est <b>rond</b> , il faut qu'il roule	[속담] 돈은 둥글어 구르게 마련이다,돈은 쉬 빠져나간다		○	
477.	tout <b>rond</b>	1.우수리 없이 2.통째로			○
478.	ne pas avoir <b>rond</b>	아량이 없다			
479.	voir <b>rouge</b>	격노하다			○
480.	être en <b>rouge</b>	[비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적자이다			
481.	à tous les coins de <b>rue</b>	도처에,사방에		○	
<b>S</b>					
482.	D'un <b>sac</b> à charbon ne peut sortir blanche farine.	[속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	
483.	être dans le <b>sac</b>	성공이 확실하다			○
484.	Raconter des <b>salades</b>	거짓말 하다, 과장하다			○
485.	<b>Santé</b> passe richesse.	[속담] 건강이 부(富)보다 낫다	○		
486.	au <b>second</b> degré	암시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없는			○
487.	poivre et <b>sel</b>	(머리가) 희끗희끗한			○
488.	faire le <b>sel</b> de qc	...에 감칠 맛[짜릿한 재미]을 주다,흥미있게 하다		○	
489.	à la petite <b>semaine</b>	궁여지책으로, 그날 그			○

		날			
490.	<b>sentir</b> l'huile	오랜 노력[노고]의 흔적을 내보이다			○
491.	Un malheur n'arrive jamais <b>seul</b>	[속담]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		
492.	comme un <b>seul</b> homme	일제히, 모두 함께			○
493.	Le <b>silence</b> est d'or.	[속담] 침묵은 금이다	○		
494.	faire <b>silence</b>	입을 다물다	○		
495.	tous les trente- <b>six</b> du mois	가뭄에 콩나듯이			○
496.	La jalousie est la <b>sœur</b> de l'amour	[속담] 질투는 사랑의 자매이다	○		
497.	On ne saurait faire boire un âne qui n'a pas <b>soif</b> .	[속담]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
498.	Avoir <b>soif</b>	목마르다	○		
499.	Le <b>soleil</b> brille pour tout le monde.	[속담] 태양은 만인을 위해 비춘다, 누구에게나 같은 권리가 있다		○	
500.	Il fait grand <b>soleil</b> .	해가 중천에 뜨다, 대낮이다.		○	
501.	<b>recevoir</b> un coup de <b>soleil</b>	[구어] 한눈에 반하다		○	
502.	<b>sortir</b> avec quelqu'un	데이트하다		○	
503.	<b>sortir</b> de l'œuf	너무 어려 세상 물정을 모르다		○	
504.	<b>souhaiter</b> être cent pieds sous terre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심정이다			○
505.	avoir le <b>sourire</b>	[구어] 만족스럽다, 만족해 하다		○	
506.	Casser <b>sucré</b> sur le dos de qqn	[구어] ...을 헐뜯다,...의 험담을 하다			○
507.	donner <b>suite</b> à qc	1....을 실천에 옮기다, ...에 응(답)하다 2....을 초래하다			○
508.	tout de <b>suite</b>	1.즉시, 지체 없이 2.바로 다음에		○	
509.	bien <b>sûr</b>	[구어] 물론		○	

510.	C'est la <b>surprise</b> du chef.	마지막에야 알게 될 것이다		O	
<b>T</b>					
511.	À <b>table</b> !	식사합시다!		O	
512.	sous la <b>table</b>	몰래		O	
513.	la couleur du <b>temps</b>	현재의 상황, 정황, 세태		O	
514.	Il y a <b>temps</b> pour tout.	[속담] 무슨 일이나 때가 있다		O	
515.	tuer le <b>temps</b>	이력저력 시간을 보내다, 심심풀이를 하다		O	
516.	<b>tenir</b> à cœur	매우 중요하다, 마음에 걸려 있다			O
517.	<b>tenir</b> compte de qc	...을 고려하다			O
518.	<b>tenir</b> la route	1.(자동차가) 주행 성능이 좋다 2.[비유] (계획·주장 따위가) 굳건하다, 실현가능하다			O
519.	<b>tenir</b> tête	대항하다, 반항하다, 대들다		O	
520.	avoir la <b>tête</b> légère	머리에 든 것이 없다, 경솔하다		O	
521.	des pieds à la <b>tête</b>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O	
522.	avoir la <b>tête</b> ailleurs	딴 생각을 하다		O	
523.	faire la <b>tête</b>	싫은 얼굴을 하다, 뽀루통하다			O
524.	avoir la grosse <b>tête</b>	[구어]우쭐해 있다, 거드름피우다			O
525.	Quand on n'a pas de <b>tête</b> , il faut avoir des jambes	[속담] 기억력이 나쁘면 여러 번 같은 일을 하게 된다		O	
526.	<b>tête</b> d'œuf	[구어] 지식인			O
527.	Faire une <b>toilette</b> de chat	고양이세수를 하다	O		
528.	<b>tomber</b> du ciel	뜻하지 않게 굴러 들어오다		O	
529.	<b>tomber</b> sur le cul	엉덩방아를 찧다, 깜짝	O		



		놀라다			
530.	<b>tomber</b> de haut	[비유] 낙담하다, 좌절을 맛보다		○	
531.	laisser <b>tomber</b>	1. 놓치다, 떨어뜨리다 2. [구어] (을) 버리다 3. 집어치우다, 그만두다		○	
532.	<b>tomber</b> à point	때 마침 나타나다, 시기가 아주 좋다		○	
533.	avoir <b>tort</b>	(...하는 것은) 잘못이다[나쁘다]	○		
534.	Les absents ont toujours <b>tort</b>	[속담] 자리에 없으면 항상 손해보게 마련이다		○	
535.	depuis <b>toujours</b>	오래전부터		○	
536.	<b>tour à tour</b>	차례차례로, 교대로, 잇달아		○	
537.	<b>Tourner</b> les talons	가버리다			○
538.	aller bon <b>train</b>	1. 빨리 가다 2.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
539.	en <b>train</b> de+ inf	1....하는 중이다 2....할 마음이 나다			○
540.	à un <b>train</b> d'enfer	전속력으로, 쏜살같이		○	
541.	mener grand <b>train</b>	호화생활을 하다		○	
542.	prendre le <b>train</b> en marche	중도에 참여하다		○	
543.	laisser qn <b>tranquille</b>	...을 가만두다	○		
544.	se <b>trouver</b> nez à nez avec qn	...와 뜻밖에[갑자기] 마주치다		○	
545.	<b>trouver</b> le temps long	지루해 하다, 진력내다		○	
U					
V					
546.	<b>voir venir</b>	속셈을 알아채다			○
547.	<b>venir</b> à la pensée	생각[머리]에 떠오르다		○	
548.	aller et <b>venir</b>	왔다갔다하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		
549.	à <b>venir</b>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	
550.	y <b>venir</b>	승낙[찬성, 수락]하게			○

		되다			
551.	avoir le <b>vent</b> en poupe	일이 순조롭게 풀리다			○
552.	avoir <b>vent</b> arrière	순풍을 받다,[비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	
553.	aller selon le <b>vent</b>	1.풍향에 따라 항해하다 2.[문어] 대세[시류]에 따르다		○	
554.	se mettre au <b>vert</b>	전원에서 휴식하다		○	
555.	pour la <b>vie</b>	일생동안	○		
556.	Ce n'est pas une <b>vie</b> !	견뎌 낼 수가 없어! 못해 먹겠군!			○
557.	être bien de son <b>village</b>	세상물정에 어둡다, 우물 안 개구리이다			○
558.	Les maisons empêchent de voir la <b>ville</b> .	[속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다		○	
559.	cuver son <b>vin</b>	술을 깨게 하다			○
560.	avoir le <b>vin</b> gai (triste, mauvais, etc.)	취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	
561.	Quand le <b>vin</b> est tiré, il faut le boire.	[속담] 시작한 일은 끝을 맺어야 한다		○	
562.	mettre de l'eau dans son <b>vin</b>	주장을 완화하다, 태도를 누그러뜨리다		○	
563.	<b>Vivre</b> en ermite	은둔 생활을 하다		○	
564.	être sans <b>voix</b>	[비유] (마음이 동요하여)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	
565.	donner de la <b>voix</b>	[비유] 항의하다			○
566.	sans le <b>vouloir</b>	본의 아니게	○		
567.	<b>vouloir</b> bien	1.동의[승낙]하다 2.시인[인정]하다			○
<b>Y</b>					
<b>Z</b>					
568.	Avoir le moral à <b>zéro</b>	의기소침하다			○

## Résumé

# Étude sur la phraséologie à destination des apprenants en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dresser une liste de la phraséologie pour le niveau A2-**

HONG Hayoung

Maîtrise en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En faisant l'apprentissage de la phraséologie, les apprenants peuvent non seulement à la fois développer leur compétence langagière, mais aussi expérimenter indirectement la culture du pays dans laquelle la langue cible est employée. Cependant, bien qu'elle dispose de grandes valeurs éducatives, la phraséologie est considérée et traitée, de nos jours, comme un élément secondaire, en didactique du français. Dans cette étude nous abordons l'importance de la phraséologie, puis nous présentons des listes sur une phraséologie qui pourrait être utilisées sur un plan éducatif pour un niveau débutant.

D'abord, à travers une partie théorique, cette étude prend en compte les différentes propriétés et catégories de la phraséologie. Nous examinons en particulier 'le figement, la polylexicalité, l'idiomaticité, l'opacité' entre les diverses propriétés de la phraséologie. La catégorisation de la phraséologie est fondée sur la typologie de González-Rey(2015 :57) qui divise la

phraséologie en trois domaines. Nous traitons ‘la phraséologie’ en position supérieure et ‘la collocation, les énoncés idiomatiques, les syntagmes idiomatiques, les parémies’ en position subordonnée. Ensuite, nous discuterons de l’importance d’un enseignement de la phraséologie, puis nous analysons, sous une forme de vérification, les valeurs de la phraséologie en tant qu’élément éducatif en consultant le « *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CECR).

Puis dans un second plan, nous examinons des manuels de FLE ainsi que le programme de l’éducation nationale dans le but de saisir la situation actuelle de l’enseignement de la phraséologie. Dans un premier point, le programme de l’éducation nationale montre que les étudiants pourraient améliorer leur compétence langagière et socio-culturelle avec enseignement de la phraséologie. Mais, force est de constater qu’il existe peu ou pas de syntagmes idiomatiques, parémies disposant d’un sens figuré dans les manuels. En revanche, beaucoup d’énoncés idiomatiques peuvent apparaître, comme les expressions communicatives fondamentales et un peu plus de collocations. D’après ces faits, nous proposons que l’utilisation des collocations, des syntagmes idiomatiques et des parémies doivent augmenter et nous suggérons un enseignement de la phraséologie dès le niveau A2.

Ainsi, cette étude tente de dresser une liste de plusieurs phraséologies destinée à un ou des apprenant(s) de niveau de A2. Pour ce faire, nous choisissons les phraséologies qui sont utilisées de façon récurrente et qui contiennent le vocabulaire fondamental. Nous classifions les phraséologies que nous avons déjà choisies sur la base d’une ‘opacité sémantique’ afin de sélectionner les unités/expressions les plus appropriées et répondant au niveau A2. Pour finir, nous présentons les listes d’expressions phraséologiques prenant en compte deux critères: ‘la manière de l’enseignement-l’apprentissage’ et ‘l’onomasiologie’.

L'enseignement d'expressions ou/et d'unités phraséologiques est un parcours à travers lequel l'apprenant doit passer afin de maîtriser une langue. De plus, la phraséologie pourrait devenir un élément éducatif favorable en lien avec la culture. Pour que les apprenants améliorent leur compétence langagière et socio-culturelle à travers la phraséologie, il faut réaliser un apprentissage de la phraséologie reparté selon les différents niveaux de CECRL et dès le niveau A2. D'ailleurs, il paraît nécessaire de proposer une variété de listes sur des expressions phraséologiques. En considération de ce fait, nous espérons que les listes de la phraséologie que cette étude a essayé de faire pour le niveau A2 seront utiles dans l'enseignement de la phraséologie.

**Mots-clés : phraséologie, phraséolodidactique, listes de la phraséologie, collocation, parémies, expression idiomatique**

**Numéro d'étudiant: 2014-22964**